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 연구책임자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 공동연구자 : 김남준(목포대학교 교수)
김향인(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류숙희(우송대학교 교수)
윤영돈(인천대학교 교수)
- ▶ 연구보조원 : 김지영(경상대학교 박사과정)
김경순(경상대학교 박사과정)
서채원(서울교육대학교 석사과정)
안초록(서울교육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 ■ ■

최근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와 기업의 부정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위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9년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의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발표하였고, 2010년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를 통하여 두 제도의 원활한 정책연계를 위한 사례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와 더불어 인성의 측면, 특히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3개 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연구입니다. 올해는 그 1년차 연구로 총괄보고서 1권과 도덕성 하위영역인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관련 4권의 하위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를 통한 정밀한 표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보고서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도덕 및 윤리교육과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개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Rest의 4 구성요소에 관한 개념 규정 및 제4 요소인 도덕적 품성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레스트의 4 구성요소 모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자 했으며, 다음으로 레스트가 언급한 제4 요소의 개념정의와 도덕적 품성화 관련 이론들(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 반두라의 자아효능감, 미셸의 만족감의 유예, 나바에즈와 랩슬리의 전문성 모델, 용기와 절제에 관한 긍정심리학의 연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 개념을 확정하였다.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 요소는 대항목으로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을, 인내의 소항목으로 인지적 전략과 자기 조절, 자아강도의 소항목으로 용기와 자아효능감, 수행기술의 소항목으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품성화 구성 요소별 측정을 위한 3가지 Story를 제시하고, 각 스토리에 인내(인지적 전략, 자기 조절), 자아강도(용기, 자아효능감),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6문항으로 제시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문항 1개를 각각 추가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총 26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검사의 신뢰도 계수(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는 .75로 안정적이었다. 타당도와 관련해서 요인분석 결과 도덕적 품성화 능력 검사는 대항목의 요소(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별이 아닌 스토리별로 구인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분석의 결과는 각 요인이 적정한 정도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독립적인 구인이며, 세 개의 대항목이 도덕적 품성화 능력 전체와의 상관이 .80에 이르러 도덕적 품성화 능력의 안정적인 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개발된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수용할만한 검사로서, 이 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된 검사는 도덕적 품성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도덕성, 청소년도덕성, 한국청소년 도덕성 진단도구, 4구성요소모형, 도덕적 품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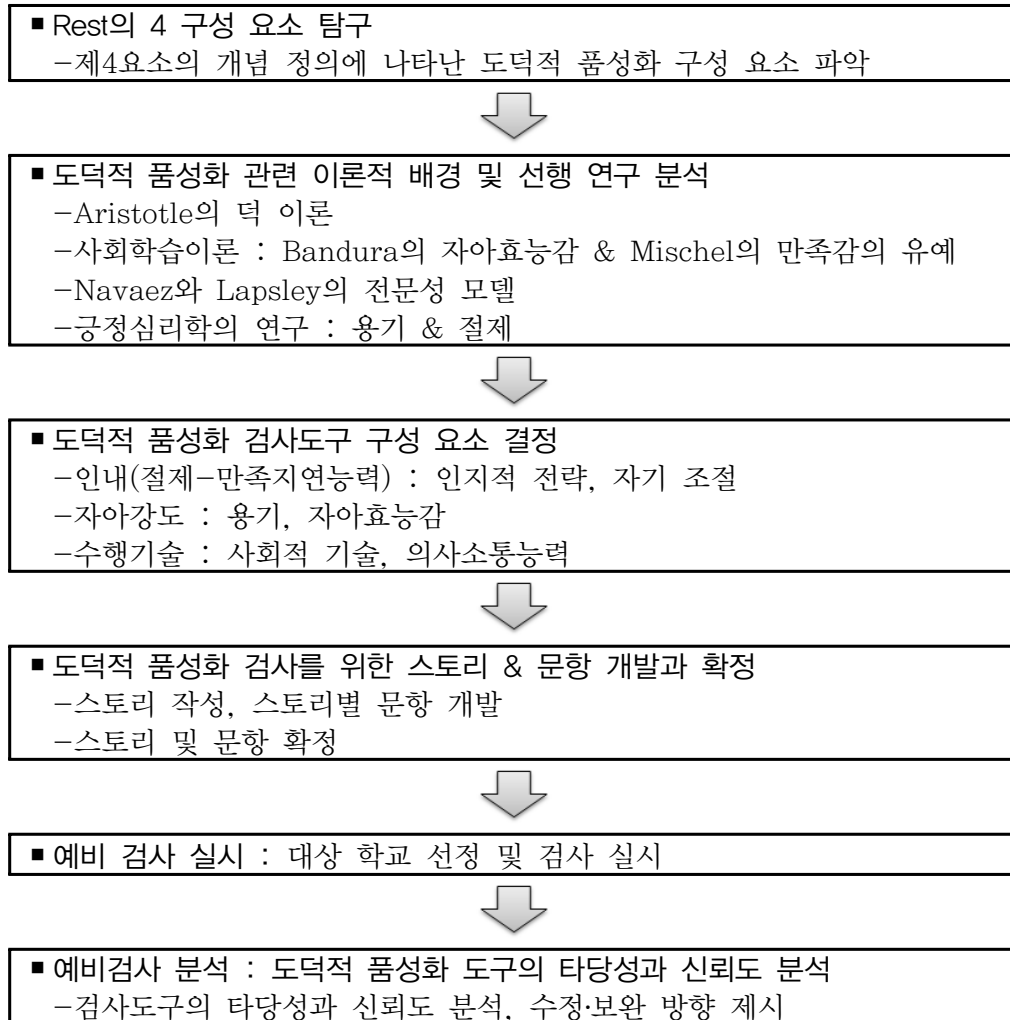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인 J. Rest가 제시한 4구성요소(Four Components: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을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개발
- 그 중에서 특히 도덕적 품성화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임.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도덕적 품성화 관련 선행 연구로 용기, 자아효능감, 절제 등에 대한 검사도구가 있으나 도덕적 품성화를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Rest의 4 구성요소에 관한 개념 규정 및 제4 요소인 도덕적 품성화와 관련하여 Rest가 언급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 요소를 대항목 및 소항목 수준에서 확정함.
-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덕적 품성화 구성 요소 확정 → 도덕적 품성화 구성 요소별 측정을 위한 스토리 개발 및 확정 → 예비조사 실시 → 통계적 기법에 의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
- 연구 대상
 - 서울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총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
 - 중학생은 116명이며, 고등학생은 146명임.
 - 남학생은 123명, 여학생은 139명임.
-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과정을 개념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주요 연구 결과

-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 요소로 대항목에는 인내(절제-만족지연능력), 자아강도, 수행기술이 확정되었으며, 인내의 소항목으로 인지적 전략과 자기 조절, 자아강도의 소항목으로 용기와 자아효능감, 수행기술의 소항목으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을 선정함.
- 스토리 및 검사지 구성: 딜레마 주제를 선정하여 내부 토의를 거쳐 6가지를 개발했고, 최종 3가지를 확정함.

- 문항 구성은 각 딜레마다 총 7문항(3개 하위요소×2개 문항 + 허위 문항1개)으로 구성.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5점 만점이고, 총18개 문항이며, 도덕적 품성화 지수의 만점은 90점임.
- 허위반응 점검은 감수성 검사지 6개 문항 중에 2개를 정-반 문항으로 설정하여, 그 차이 정도를 기준으로 허위 반응을 걸러냄.
- 신뢰도 점검과 관련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하위요소별로 산출하였으며, 문항별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함.
- 타당도 점검과 관련하여 구인타당도를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소 간 독립성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함. 아울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내용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함.
- 학교급별, 성별 등 집단별 통계 분석을 통해 전체 평균 및 분포를 파악함. 도덕적 품성화 90점 만점에 최대값은 81점, 평균은 66.48점이었으며, 도덕적 품성화 구성 요소 중 사회적 기술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옴.

4. 정책적 제언

-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도덕적 품성화 검사 요소에 대한 보다 정교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향후 도덕적 품성화의 지수 산출과 각 지수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 결과의 국제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외국학자를 초청하여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지수개발 후, 연도별 전국 규모의 도덕성 조사 및 메타 정보 생산을 위한 예산 편성 건의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5
1) 연구 절차	5
2) 연구 대상	5
II. 이론적 배경	7
1. 도덕성 정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9
2. Rest의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11
3.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및 하위 영역	13
4. 도덕적 품성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15
1) 고전적인 덕 이론 : Aristotle의 도덕적 품성 논의	16
2) 사회학습이론	18
3) Narvaez와 Lapsley의 전문성 모델	21
4) 용기와 절제에 관한 긍정심리학의 연구	23
5.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개발 방향과 과정	31
1) 개발 방향	31
2) 개발 과정	32
III. 연구 결과	35
1. 개발된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37
1) 개념 및 하위 요소	37
2)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39
2. 신뢰도 분석	40
1) 내적 일치도	40
2) 문항별 신뢰도	42

3. 타당도 분석	42
1) 구인 타당도	42
2) 상관분석	48
4. 문항 분석	49
1) 도덕 품성화 문항 분석	49
2) 허위 문항 분석	51
5. 집단별 통계 분석	54
1) 전체 평균 및 분포	54
2) 학교급별 비교	55
3) 성별 비교	56
 IV. 논의 및 결론	59
1. 요약 및 결론	61
2. 활용 방안 및 정책 방안	63
3. 2차년도 연구 세부 계획	64
 참고문헌	67
 부록	73

표 목 차

〈표 I-1〉 연구대상(학교급, 성별)	5
〈표 II-1〉 Rest의 구성요소 4에 상응하는 행동	22
〈표 II-2〉 용기의 개념 정의	24
〈표 II-3〉 긍정심리학에서 본 용기의 개념	26
〈표 II-4〉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용기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	26
〈표 II-5〉 긍정심리학에서 본 절제의 개념	27
〈표 II-6〉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절제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	28
〈표 II-7〉 VIA-RTO 문항의 예(용기)	30
〈표 III-1〉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구성 요소	37
〈표 III-2〉 검사 구조 및 채점 방식	39
〈표 III-3〉 사례별 도덕적 품성화 하위 요소	40
〈표 III-4〉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별 신뢰도 계수	41
〈표 III-5〉 도덕적 품성화의 각 하위요소별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41
〈표 III-6〉 도덕적 품성화 전체의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42
〈표 III-7〉 도덕적 품성화의 탐색적 요인 분석	43
〈표 III-8〉 도덕적 품성화의 탐색적 성분 간의 상관	43
〈표 III-9〉 도덕적 품성화의 확인적 요인 분석	44
〈표 III-10〉 도덕적 품성화의 확인적 성분 간의 상관	45
〈표 III-11〉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 분석(인내)	46
〈표 III-12〉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 분석(자아강도)	46
〈표 III-13〉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 분석(수행기술)	46
〈표 III-14〉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 분석 결과 종합	47
〈표 III-15〉 도덕적 품성화 소항목과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48
〈표 III-16〉 도덕적 품성화 대항목간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48
〈표 III-17〉 ‘콘서트를 가다가’ 스토리의 문항 분포	49
〈표 III-18〉 ‘어머니의 심부름’ 스토리의 문항 분포	50

〈표 III-19〉 ‘PC방에서’ 스토리의 문항분포	50
〈표 III-20〉 사례별 허위 문항	51
〈표 III-21〉 허위 문항의 반응 결과(빈도)	52
〈표 III-22〉 허위문항의 반응결과(평균,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52
〈표 III-23〉 사례별 허위문항의 반응	53
〈표 III-24〉 허위문항과 도덕적 품성화 하위영역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54	
〈표 III-25〉 허위문항의 학교급별, 성별 차이 유의도 분석	54
〈표 III-26〉 도덕적 품성화의 평균 및 분포(대항목, 도덕적 품성화 전체)	55
〈표 III-27〉 도덕적 품성화의 평균 및 분포(소항목)	55
〈표 III-28〉 학교급별 도덕적 품성화의 비교	56
〈표 III-29〉 도덕적 품성화의 남녀 성차	56
〈표 III-30〉 중학생의 도덕적 품성화의 성차	57
〈표 III-31〉 고등학생의 도덕적 품성화의 남녀차	58
〈표 IV-1〉 2차년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개발 방향	62

그림 목 차

【그림 II-1】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과정	33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국가의 장래는 그 국가 청소년의 가치관과 인격과 시민성에 달려 있다. 그런데 가치관과 인격과 시민성의 핵심에 도덕성이 놓여 있다.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덕성 발달 지표와 검사도구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발달수준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타당한 도덕성 교육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도덕성에 대한 탐구는 인지적 측면에서, 정서적 측면에서 혹은 행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하면서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연구는 Rest에 의해 제시되었다. Rest는 도덕성 발달의 4구성 요소 모형을 통해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내지 실행(implementation)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덕적 행동의 실패는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 야기된다고 보았다(Rest, 1986; 문용린 외 공역, 2008; Narvaez & Rest, 1995; 서미옥, 2005). 이렇게 도덕적 행동의 성패는 적어도 네 가지 과정이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감수성, 도덕적인 동기나 도덕적인 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도덕적 행동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돕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도덕적 행위의 표출을 위해서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 도덕적 판단과 함께 도덕적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심리적 힘과 수행기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지하듯이 선에 관한 앎이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간주하는 L. Kohlberg (1981)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고전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간의 괴리의 원인을 ‘의지의 나약함(akrasia, weakness of will)’에서 찾고 있는 Aristotle의 관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N.E., 1151b-1152a).

도덕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심리적 힘, 수행기술, 도덕적 품성과 같은 하위요소의 탐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심리적 힘과 도덕적 품성의 요소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구조화할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진단과 교육적 처방을 위해서는 도덕적 실행력 내지 도덕적 품성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research problem)를 견지하면서 본 연구는 Kohlberg의 인지결정론적 입장을 지양하고, 인지와 정서와 행동을 통합적으로 보고자 했던 Rest의 4구성 요소 가운데 제4 요소에 근거하여 도덕적 행동 내지 실행력에 관여하는 하위요소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도덕적 품성화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국내외에 Rest의 제4 요소에 입각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의미가 크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덕적 실행력과 긴밀하게 결부될 수 있는 자아강도, 자기 조절, 인지적 전략, 인내, 굳건함, 용기, 의지력, 유혹에의 저항, 절제 및 만족의 지연 등과 같은 심리적 힘과 능력이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구성요소로 범주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이 함의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 중 제4 요소의 관점에서 도덕적 행동의 실패 요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덕적 처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 행동의 실행을 위해서는 자아강도, 자기규율, 인지적 전략, 인내, 굳건함, 용기, 의지력, 유혹에의 저항, 절제 및 만족의 지연 등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근육(moral muscles)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육 강화를 위한 진단 및 운동 처방과 이에 근거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처럼 도덕적 근육의 진단 및 도덕적 처방 그리고 이에 근거한 도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도덕적 삶과 행동의 괴리가 현저하게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구성이다. 국내·외에서 청소년 대상 도덕적 품성화 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도덕적 품성화 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명확해진 개념을 적절하고 의미 있게 측정하기 위한 선정된 개념의 정의 및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품성화 검사의 문항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사의 개념 및 이론적 구조에 기반하여 도덕적 품성화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넷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다섯째, 검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하여 개발된 검사의 활용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총 262명이며, 중학생은 44.3%, 고등학생은 55.7%이며, 남학생은 46.9%, 여학생은 53.1%로서 여학생이 근소하게 많으나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 -1 연구 대상(학교급, 성별)

학교급별	남	여	합 계
중학생	58 (50.0)	58 (50.0)	116 (44.3)
고등학생	65 (44.5)	81 (55.5)	146 (55.7)
합 계	123 (46.9)	139 (53.1)	262 (100)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도덕성 정의: 인지 · 정서 · 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2. Rest의 4-구성요소 모형
(Four Components Model)
3.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및 하위
영역
4. 도덕적 품성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5.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개발
방향과 과정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도덕성 정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¹⁾

도덕성은 지금까지 주로 세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인지발달론이 중시하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신분석학이 강조하는 도덕적 정서, 그리고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이론이 주목하는 도덕적 행동이 그것이다. 도덕성 발달이론을 처음 주창한 Kohlberg(1958)는 도덕성 개념을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도덕적 사고(판단) 능력으로 정의하고, 보편·불변적이고 불가역적인 순차성을 지니는 6개의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도덕성은 도덕적 사고나 정서, 행동 중 그 어느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뛰어난 추론(사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때때로 세련된 추론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감추거나 방어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정이입이나 죄책감이 크다 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입의 능력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은 오히려 도덕적 행동을 저해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또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해서 반드시 도덕적이라 정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도한 죄책감은 비정상적인 신경증만을 유발할 뿐, 높은 도덕적 이상의 경지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행동의 동기나 의도가 아닌, 행동 그 자체가 도덕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컨대,

1) 본 연구는 J. Rest의 도덕성에 대한 4구성요소 중 도덕적 판단력에 관한 것이지만 나머지 3개의 다른 요소들과 이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서의 연구진과 공동으로 이론을 탐구하였으므로 이론적 배경에서 상당 부분 중복됨을 밝힌다.: 이인재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박병기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박균열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한다 해서 모두 도덕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돕는 행동만으로 도덕적일 수 있다면, 소화를 돕는 위장 박테리아의 활동이나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 주는 오존층의 역할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의 결과만으로 도덕성을 정의한다면, 남을 해치기 위해 음식에 독약을 넣은 것이 그의 위장병을 고쳤을 때 그것도 도덕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Rest, 1986).

따라서 도덕성이나 도덕 교육의 연구에서 사고나 정서, 행동의 세 측면을 따로 나누어 접근하기보다는 각 측면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도덕적 행동을 중심적 위치에 놓고 도덕적 사고나 정서가 그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행동을 중시하는 것은 도덕성 연구나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까지나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덕적 추론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결과나 영향에 대해 아무리 민감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사고(인지)만으로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사고와 정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인 도덕적 행동에 대한 예언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한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T. Lickona와 Rest를 들 수 있다. 통합적 인격교육론자인 Lickona(1991)는 도덕성을 인지적 도덕성, 정의적 도덕성, 행동적 도덕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성 요소들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Lickona는 통합적 관점의 도덕교육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도덕적 선(善)을 알게 하는 것에만 치중한 인지발달론적 관점과 선을 직접 행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 간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훌륭한 인격은 선(善)을 아는 것(도덕적 지식)과 선을 열망하는 것(도덕적 감정),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덕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교육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원하며, 그러한 도덕적 지식과 감정을 도덕적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덕적 판단·감정·행동의 능력을 모두 갖춘, 완전한 도덕 행위자를 길러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추병완, 1999).

한편, Kohlberg의 이론적 입장을 이어 받은 Rest(1986)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서, 행동에 관하여 Kohlberg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도덕성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그들이 서로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원리이자 안내’ 라고 정의하면서(문용린, 1988a), 도덕적 사고(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 주목하였다. 그는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4가지의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제1 요소), 도덕적 판단력(제2 요소), 도덕적 동기화(제3 요소), 실행 능력(도덕적 품성화) (제4 요소) 등의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이 실제로 표출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이들을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덕적 사고나 정서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만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적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연구는 Rest의 모형을 토대로 하여 도덕적 품성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Rest의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이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도덕성을 인지 측면(판단력)에서만 보지 않고 정서와 행동의 측면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인지발달론자인 Rest가 이러한 모형을 제시한 것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도덕성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모형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개인이 도덕적 행동에 이르게 되는 여러 심리적 과정들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도덕적 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하나의 틀 속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세 이론인 인지발달론(인지 측면)과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이론(행동 측면), 그리고 정신분석학(정서 측면)을 종합하려는 이론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한 개인의 도덕적 행동은 첫째, 도덕적 상황의 인식 및 해석, 둘째,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한 추론, 셋째, 도덕적 동기화, 넷째, 도덕적 행동의 실행 등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덕적 행동의 실패는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 야기된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 과정에서 필요한 제1 요소는 도덕적 민감성 또는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이다. 이는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미칠 수 있을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다. 먼저,

어떤 상황을 도덕적 사태로 지각·해석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Rest(1986)는 이에 대하여, 1964년 미국 뉴욕시에서 일어난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방관자 효과(bystander's effect)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Rest, 1986). 그것은 도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늦은 저녁에 한 여성이 강도에게 30분 동안이나 폭행을 당해 숨지기까지, 38명의 이웃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에 대해 면담한 결과, 그들은 모두 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몇몇 사람은 연인들 사이의 공연한 다툼으로 생각하고 간섭하기 꺼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해도 도덕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S. H. Schwartz(1977)의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가능한 결과들에 주목하는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성의 유무는 당연히 도덕적 행동의 표출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은 제2 요소인 도덕적 추론(인지) 능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이라 볼 수 있고,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두 요소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Bebeau et al., 1985).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는 미네소타 대학 치과대학의 M. J. Bebeau 등(198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 역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요소는 도덕적 추론(moral judgment)이다. 제1 요소에서 가능한 행동의 경로들과 그것이 타인에 미칠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인식(지각)이 이뤄지고 난 후, 제2 요소에서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요소는 도덕적 사고(인지)를 지칭하는 바, Kohlberg의 이론 체계에서 도덕성으로 간주되던 것이지만, Rest의 모형에서는 단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요소의 측정에는 Kohlberg가 개발한 주관식 인터뷰 검사인 MJI(Moral Judgment Interview)와 이를 객관화한 Rest의 DIT(Defining Issues Test)가 있고, 최근에는 전문인의 도덕성을 별도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사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F. Y. Chang(1993)의 TTMR(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과 간호사의 도덕성을 재는 P. Crisham(1981)의 NDT(Nursing Dilemmas Test)가 개발된 바 있다.

제3 요소는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이다. 제1 요소에서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슈를 가려내고 그것의 해결이 타인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헤아릴 수 있고, 제2 요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경로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서 도덕적 행동이 곧바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3 요소에 의해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 예컨대 경제·사회·종교적 가치들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동기 부여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Bebeau 등(1993)에 의해 개발된 PROI(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를 들 수 있는데, 이 도구는 전문직 종사자의 역할 개념(role concept)의 측정을 통해 그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평가하려는 도구이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마지막 요소는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인데, 이 요소는 자아 강도(ego-strength)와 인내심, 용기 등의 하위 특성들을 포함한다. 한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을 잘 하며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더라도, 그가 만일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거나 쉽게 용기를 잃고 좌절한다든가, 의지가 약하든가 하면 도덕적 행동은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제4 요소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그것이 일종의 심리적 힘이나 기술(skills)로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띠는 점이다.²⁾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진단하는 연구에서도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 있다.

3.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및 하위 영역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에서 제4 요소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위한 심리적 과정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st의 제4 요소는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또는 실행력(implementation)으로 표현된다. 도덕적 품성이라는 어의에서는 정태적 성격이 부각되는 데 비해, 실행력에서는 동태적 성격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4 요소가 개인의 굳어진 품성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인지적 전략, 의지력, 사회적·심리적 기술과 같은 하위 요소들 간의 동적인 관계 속에서 도덕적 행동이 표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4 요소를 ‘실행력과 같은 동태적 성격이 배어있는 도덕적 품성’이라는 맥락에서 “도덕적 품성화”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Rest의 제4 요소와 관련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굳은 결심, 인내, 의지력, 용기, 강한 성품, 자아 강도와 같은 것은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자아강도는 은행을 털 때, 마라톤을 준비할 때, 콘서트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때, 대량학살을 일으킬 때처럼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Rest, 1985: 22; 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39).

“실행력은 자아 강도와, 선택된 행동을 수행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심리적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Implementation combines the ego strength with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skills necessary to carry out the chosen action.” (Narvaez & Rest, 1995: 386; Narvaez & Rest, 문용린 역, 2007: 488).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 과정 가운데 제4 요소는 “목표수행의 지속성(인내)인데, 그것은 인지적 변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Task persistence as affected by cognitive transformation of the goal.” (Narvaez & Rest, 1995: 387; Narvaez & Rest, 문용린 역, 2007: 489).

“(도덕적으로 행위한 behaving morally)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피로와 최악한 의지에 저항하며,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에 뒤따르는 충분한 인내심과 자아강도 그리고 수행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24).

“구체적인 행동의 순서를 이해하고, 장애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피로와 좌절을 극복하고 마음의 혼란과 다른 유혹에 저항하며,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인내, 결의, 능력 그리고 인성은 구성요소 4에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귀인이자 덕들이다(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39).

첫 번째 인용문에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아강도, 사회적·심리적 기술이 있다. 여기서 자아 강도는 하위요소로 명확한 데 비해, 사회적·심리적 기술은 “선택된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로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속성으로서 인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제수행의 지속성은 인용문의 언급처럼 “인지적 변형” 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인용문에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 요소로 인내심, 자아강도, 수행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인내심과 자아강도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수행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수행기술’ 은 앞의 인용문에 언급된 “선택된 행동을 수행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심리적 기술” 과 친화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사회적·심리적 기술” 은 두 번째 인용문에

언급된 “인지적 변형” 과 같은 인지적 전략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인용문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순서를 이해” 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 가운데 인지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장애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피로와 좌절을 극복하고” 에서 인내나 용기의 요소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혼란과 다른 유혹에 저항하며” 에서 절제나 만족지연능력과 같은 요소가 관련되며,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것” 에서는 결의 내지 의지력이나 자아효능감과 같은 요소가 관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Rest는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인내, 결의, 능력 그리고 인성” 을 제4 요소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귀인이자 덕들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가 다소 확산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Rest가 제4 요소와 관련하여 제시한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볼 때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들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인용문단에 언급된 인내심, 자아강도, 수행기술에 근거하여 다른 인용문단에서 언급한 것들을 범주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들을 범주화 하는 데 있어서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

4. 도덕적 품성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Rest는 제4 요소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40-41; Narvaez & Rest, 1995: 396; Narvaez & Rest, 문용린 역, 2007: 500-501). 가령, “육신의 연약함(weakness of the flesh), 의지의 나약함(weak-willedness), 소심함(cowardliness) 등으로 인해 자기규제적 행동은 실패한다.” 고 보았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의지의 나약함(akrasia)’ 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인지적으로 목표 대상을 변형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자기규제(self-regulation, 자기 조절) 기술과 관련하여 W. Mischel(1976)의 마시멜로를 활용한 연구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자아강도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A. Bandura의 자아효능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Mischel과 Bandura의 관점은 사회학습이론에 위치한다. 그 밖에 긍정적인 사고가 자기규제(자기 조절) 및 과제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Masters와 Sandtrock(1976→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에서 재인용)의 연구나 이와 관련된 Ellis(1977→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에서

재인용)의 합리적 정서치료(Rational Emotive Therapy)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다.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Rest가 언급한 연구나 제4 요소와 긴밀한 관련성을 맺는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고전적인 덕 이론 : Aristotle의 도덕적 품성 논의

Aristotle의 덕 이론은 현대의 덕 윤리학이나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의 이론적인 기초로 간주된다(윤영돈, 2010: 37). ‘인격 (character)’ 은 ‘새기다(engrave)’ 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락테르(charaktēr)’ 에서 유래한다.

Aristotle의 도덕적 품성에 관한 논의는 덕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한다(윤영돈, 2000: 112-116). Aristotle은 덕을 지적인 덕(hai dianoētikai aretai)과 품성적인 덕(hai ēthikai aretai, 도덕적인 덕)으로 나누고 있다(1103a1-10). 주로 후자가 도덕교육과 관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 도덕적인 덕은 어원상 “품성적인 덕” 에 가깝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적인 덕에도 실천적 지혜(phronēsis)처럼 도덕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요소가 있다. 흔히 도덕교육에 있어서 이성적 능력의 발달이 미비한 14세 전까지는 습관이나 모방을 통한 가치-태도의 습득에 주안점을 두는데, 이는 Aristotle이 구분한 ‘품성적인 덕(도덕적인 덕)’ 에 상응하며, 분별연령인 14세 이후에는 가치선택 및 판단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지적인 덕 가운데 ‘실천적 지혜(phronēsis)’ 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성품적인 덕의 가능태와 현실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Aristotle에 있어서 덕의 종류는 영혼의 구분을 통해 분류된다. 그에 의하면 영혼은 비이성적 요소(to alogon)와 이성적 요소(to logon)로 이분된다. 다시 이성적 요소는 그 속에 이성적 원리를 가진 것과 그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지적인 덕(hai dianoētikai aretai; intellectual virtues)과 관계하며, 후자는 품성적인 덕(도덕적인 덕)과 관계한다(N.E., 1102a34-1103a10). 지적인 덕은 대체로 교육으로부터(ek didaskalias) 발생 및 성장하며, 성품적인 덕은 습관(ethos)의 결과로 생긴다(1103a15-17). 그런데 품성적인 덕은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선천적인 덕의 가능태(dynamis)가 습관을 통하여 현실화(energeia)된 것인가. 이에 대해 Aristotle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도덕적인 덕들은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생기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우

리 속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습관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N.E., 1103a24-26)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Aristotle은 인간이 도덕적인 덕을 습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능태로서의 선천적 본성(physis)과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습관(ethos)에서 찾는다. 그에 의하면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하게 된다(1103b1-3). 그러므로 성품(hexis)은 각기 거기 대응하는 활동(energeia)에 따라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장과정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에 따라 거의 모든 차이(diaphora)가 나타난다고 하겠다(1103b22-25).

품성적인 덕은 정념과 행동이 중용의 형식을 따라 지속적으로 발휘될 때 붙여지는 이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용의 형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마땅한 동기로, 마땅한 태도로 느끼거나 행하는 것으로서 중간적(meson)이며, 최선(ariston)의 것이다.(N.E., 1106b20- 24, cf. 1109a27-30)

이와 같이 중용의 형식은 다양한 행위 내지 정념의 목록들을 대입만 하면, 최적의 행위 및 정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가령, 도덕적 덕으로서의 용기란 용기를 내야할 마땅한 시기와 마땅한 일과 마땅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한 동기와 마땅한 태도로 용기를 낼 때에 올바른 용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품성적인 덕은 옳은 행동을 한 개인이 습관화될 때까지 규칙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인격적 특성이다. 요컨대 Aristotle에게 있어서 품성적인 덕은 습관화된 중용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품성적인 덕에서 습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 속의 맥락에서 품성적인 덕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습관 이외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헤아리고, 주어진 목표로서 덕을 실현하기 위한 인지적 전략이 필요하다. Aristotle은 그러한 인지적 능력을 앞서 언급했듯이 실천적 지혜라고 말한다. 물론 실천적 지혜는 가치지향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인지적 전략과 같은 성격을 넘어서는 측면도 있다.

요컨대 개인이 선하고 덕성 있게 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로 타고난 본성(physis), 습관(ethos) 그리고 이성적 능력(logos, 즉 실천적 지혜)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천적 지혜에 대해 부연하자면 그것은 보편적인 것에도 관계하지만 주로 개별적인 것에 관계한다(1141b22-23). 품성적인 덕(성)이

올바른 목적을 선택한다면 실천적 지혜는 그 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들을 행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1145a4-6). 물론 여기서 실천적 지혜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갓 도구적 이성이나 인지적 전략으로만 간주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Aristotle에게 있어서 실천적 지혜는 단지 목적 실행의 수단을 고려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Aristotle의 덕 이론은 도덕적 삶과 도덕적 행동 간 괴리의 원인으로서 ‘의지의 나약함(weakness of will)’ 문제를 해명하는 데 설명력이 있다. 또한 도덕적 품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도덕적 습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헤아리면서 도덕적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인지적 전략으로서 실천적 지혜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Aristotle의 덕 이론은 인내심이나 용기, 절제, 사회적·심리적 수행기술과 같은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적 지혜와 같은 인지적 전략이 매개되어야 한다는 고전적인 논거를 제시한다.

2) 사회학습이론

(1) Bandura의 연구 : 자아효능감

Bandura의 자아효능감 개념은 높은 ‘자아강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아효능감’은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아상’ 내지는 ‘자신감’이다. Bandura는 사회적 행동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자아효능감 이론을 제안했다(Musser & Leone, 1992: 156). 자아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효능감은 “무수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이 조직화되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배합되어야 하는 생성적 능력이다” (Bandura, 2003: 28). 그러므로 자아효능감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학업성취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고, 여가시간활용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효능감 중에서도 관계효능감은 청소년의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자아효능감에 대한 기대는 자기-동기화(self-motivation)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self-regulation, 자기 규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Musser & Leone, 1992: 157).

자아효능감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은 자기에 대한 지식의 주요한 측면을 구성한다. 자아효능감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정보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데, 정보의 근원은 크게 네

가지이다(Bandura, 2003: 183-250). 첫째, 성공경험이다(enactive mastery experiences). 성공의 경험들이 자아효능감의 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성공은 자아효능감에 대한 강한 신념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과제의 완수는 개인의 자아효능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의 다른 측면으로 전이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자아효능감의 중요한 자원으로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 즉 모델링이 있다. 직접적으로 수행된 성공의 경험이 자아효능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대리적 경험 또한 개인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관찰자 자신의 잠재된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높인다. 효과적인 대처전략에 대한 모델링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자아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혹은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이 있다. 특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가 “너는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경우, 처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효능감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언어적 설득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타자의 평가 내지는 사회적 평가이다. 넷째, 자아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리적·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긴장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효능감이 낮아진다.

요컨대 Bandura의 자아효능감 관련 연구는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 가운데 ‘자아강도’의 개념을 구축하는 데 높은 설명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자아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언급된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사회적·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의 개념은 자아강도를 묻는 문항을 개발할 때 유의미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Mischel의 연구 : 만족감의 유예

사회학습(social learning) 이론은 도덕성의 요소 가운데 행동의 차원을 강조하는 도덕적 사회화 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 도덕적 사회화의 영역으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유혹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temptation), 만족감의 유예(delay of gratification)를 들 수 있다(Musser & Leone, 1992: 141). 이 가운데 만족감을 유예하는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만족감을 유예하는 능력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에서 얻고자 하는 자극을 억제해야만 한다는 유혹에 대한 억제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그런데 양자 간 동기화의 기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이를 테면 유혹에 대한 억제에서 동기화는 체벌을 피하기 위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인데 비해, 만족감의 유예에 관여하는 동기화는 향후 더 바람직한 보상의 전망과 관련한다(Musser & Leone, 1992: 148).

만족감의 유예에 관여하는 동기화는 자기 조절(self-regulation, 자기 규제)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로 목적 대상에 대한 ‘인지의 전환’ 이 개입되어 있다. Mischel(1974)은 보상물(마시멜로)을 기다리는 어린 피험자들의 능력을 연구하였다. 몇몇 어린이들은 마시멜로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생각하도록 지시받고, 다른 어린이들은 마시멜로를 숨뭉치로 생각하도록 지시받았다. 마시멜로를 맛있는 것으로 생각한 어린이들은 숨뭉치로 간주하게 했던 어린이들만큼 기다릴 수가 없었다.

“자기 조절을 하는 동안 인지의 전환과 관련 있는 규칙들을 알고 그 규칙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비록 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상당한 자기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ischel, 1974: 94).

Mischel은 성격(personality)을 새롭게 규정한다. 전통적인 맥락에서 성격은 특질(trait) 지향적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특질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가로질러 어떤 행위를 인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ischel은 성격을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관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특정 개인 변인(person variables)과 특수한 환경 상황 변인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ischel, 1968, 1969, 1973→Musser & Leone, 1992: 153에서 재인용).

여기서 개인 변인에는 “능력(competencies)”, “부호화와 범주화 능력(encoding and categorization)”, “결과에 대한 기대(expectancies about outcome)”, “주관적 가치(subjective values)”, “자기 조절 체계와 계획(self-regulatory systems and plans)” 등이 있다(Musser & Leone, 1992: 153-156). ‘능력’ 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인지적이고 행동주의적 반응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반응을 더 잘 할 수 있다. “부호화와 범주화 능력” 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 능력과 관계된다.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습득하는 정보에 대한 선택적인 수용과 해석 그리고 범주화는 개인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개인마다 상이한 부호화와 범주화 능력은 인지적 변형(cognitive transformations)을 포함한다. 동일한 문제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고 범주화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만족을 보다 잘 조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한 기대” 는 “능력” 이나 “부호화와 범주화 능력” 과 차이점이 있다. “능력” 이나 “부호화와 범주화 능력” 이 “행할 수 있는 가능성(capable of doing)” 을 지시한다면, “결과에 대한 기대” 는 “실제적인 수행(actual performance)”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할 때, 만족에 대한 유예가 잘 이루어진다. 그런가 하면 과거 만족감의 유예가 보상받았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경험에 근거해서 만족의 유예를 잘 수행할 수도 있다. 또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subjective values)”에 근거하여 사회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끝으로 “자기 조절 체계와 계획(self-regulatory systems and plans)”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행위는 상당부분 행위의 결과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개인 스스로가 부과한 목표나 기준(self-imposed goals/standards) 혹은 스스로 산출한 결과(self-produced consequences)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자기 조절 체계와 계획”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 변인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만족감의 유예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변인 중 개인의 “주관적 가치” 변수는 도덕적 동기화와 친화력이 있고, 다른 변인들은 도덕적 품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기대” 변인이 “능력”이나 “부호화와 범주화 능력” 변인보다 실제적인 행동의 수행에 보다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조절체계와 계획” 변인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채택하는 규칙과 관계된다.

‘만족감의 유예(delay of gratification)’에 관한 Mischel의 연구는 Rest가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로 언급한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 가운데 인내의 개념과 친화력이 높다. Mischel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만족감의 유예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지적 전략을 통한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맥락에서 만족감의 유예는 과제수행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인내와 호환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로 인내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전략과 자기조절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Narvaez와 Lapsley의 전문성 모델

D. Narvaez와 D. K. Lapsley(2008: 273-278)는 Rest의 4 구성요소를 전문성 훈련 교육의 맥락으로 발전시켜 단계별 윤리적 기술로 구조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통합적 윤리교육(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IEE)의 관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통합적 윤리교육은 감수성(sensitivity), 판단(judgement), 중점(focus, 도덕적 동기화에 해당), 행동(action) 등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Rest의 4 구성요소 가운데 제4 요소에 상응하는 행동(action)과 관련한 기술이다(Narvaez & Lapsley, 2008: 277)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Rest의 구성요소 4에 상응하는 행동

EA-1	: 갈등과 문제해결(상호관계 문제해결하기, 협상하기, 개선하기)
EA-2	: 공손하게 주장하기(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기, 주장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
EA-3	: 지도자로서 술선수범하기(리더 되기,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술선수범하기, 다른 사람의 조언자 되기)
EA-4	: 결정의 실행 계획하기(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자원의 사용 결정하기)
EA-5	: 용기 함양하기(두려움 다스리기, 압력 견뎌내기, 변화와 불확실성 다스리기)
EA-6	: 참을성 기르기(확고부동, 장애를 극복하기, 능력을 형성하기)
EA-7	: 열심히 일하기(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시간을 관리하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 표에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와 직결되는 것으로 “용기 함양하기” (EA-5)나 “참을성 기르기” (EA-6)가 있다. 그런가 하면 “결정의 실행 계획하기” (EA-4) 역시 인지적 전략이나 자기 조절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수행기술로서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갈등과 문제 해결” (EA-1), “공손하게 주장하기” (EA-2)를 살펴보자. “갈등과 문제 해결”의 하위 기술로 “상호관계의 문제해결하기, 협상하기, 개선하기”가 있으며, “공손하게 주장하기”의 하위 기술로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기, 주장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가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결정했을 경우라도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동기가 감소되었을 수도 있고, 상황 자체가 변할 수도 있으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조력행위를 하고자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를 적절하게 돕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적 주장”, 즉 의사소통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J. Rest(ed.), 문용린 외 역, 2008: 39).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 행위가 행위 주체와 타자 간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가운데서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사회과정의 연결용 고리” 와도 같다. 개인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존재한다.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에는 조화 vs 갈등, 유인 vs 배척, 사랑 vs 증오와 같은 양면성이 노정되어 있다. 사실 전적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존재하기 어렵다(Coser, 신용하·박명규 공역, 2010: 223-224). 그러므로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인간관계의 맥락 속에서 도덕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수행기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Rest의 4구성요소를 전문성 훈련 교육의 맥락으로 발전시킨 Narvaez와 Lapsley의 전문성 모델에

언급된 행동(action)과 관련한 기술은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의 개념을 구축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갈등과 문제해결” (EA-1), “공손하게 주장하기” (EA-2)와 관련한 행동 요소는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능력과 친화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은 Rest의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 가운데 수행기술의 개념을 구체화 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4) 용기와 절제에 관한 긍정심리학의 연구

C. Peterson과 M. E. P. Seligman의 주도 하에 여러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 중 성격적 강점과 덕성의 분류 체계를 개발해 왔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결함과 장애에 대해서 방대한 분류 체계로 구축된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isorders)에 상응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강점과 덕성에 대한 분류 체계, 즉 VIA(Vitruues in Action) 분류 체계이다. 연구자들은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덕목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 200여개의 덕목을 찾아냈으며, 이들 덕목을 10가지 기준(보편성, 행복 공헌도, 도덕성, 타인에의 영향, 반대말의 부정성, 측정 가능성, 특수성, 모범적 인물의 존재, 결핍자의 존재, 풍습과 제도)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6개 영역의 24개 강점과 덕성이 최종 선정되었다. Peterson과 Seligman은 24개의 성격적 강점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형 검사인 VIA 강점척도(VIA-IS: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를 개발하였다. VIA-IS는 각 강점 당 10문항씩 할당되어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용 검사이다(권석만, 2009: 174-177). 물론 K. Dahlagaard와 Nansook Park에 의해 청소년을 위한 자기 보고식 성격 강점 척도(VIA-Youth)가 개발되고 있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23 재인용). 피검사자는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같거나 다른지를 5점 리커르트 척도로 평정한다.

도덕적 품성화와 관련된 성격적 강점으로 용기(용감함, 인내, 진실성, 활력)와 절제(용서와 자비, 겸손/겸양, 신중함, 자기 조절)를 들 수 있다.

(1) 용기

용기는 < 표Ⅱ-2 >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용기의 개념 정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두려움에 대처하고 진실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행동’ 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2 용기의 개념 정의

학자	정의
Aquinas	용기(fortitudo)는 “견실한 것을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것, 즉 심각한 위험들을 견디거나 격퇴하는 마음의 굳건함, 일차적으로는 신체적 손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을 지속하고, 이차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확고한 미해결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확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 (1984: 123)으로 정의되었다.
Aristotle	안드레이아(군인의 용기)는 두려움과 자신감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소질로 정의되었다.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중용(Rorty, 1988)
Finfgeld	“용기 있다는 것은 장시간에 걸친 건강 염려의 위협을 충분히 자각하고 수용하며, 통찰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요구나 세상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용기 있는 행동은 책임을 지는 것과 생산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 153)
Haitch	용기에는 두 측면이 있다. 한 측면은 확고함을 지키거나 투쟁하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용기는 개인이 위험이나 죽음에 맞설 수 있게 해 주는 심리적인 힘이다” (1995: 86)
Kant	용기(fortitudo)는 “강하지만 부당한 대상에 저항하는 능력과 단호한 목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성향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 (Rorty,1988: 307)”로 정의된다.
Kennedy	(정치적인 용기를 가진 정치가를 묘사하였다.) “개인적 이득과 정치적 이유를 넘어서서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는 사람” (1956: 21)
Kohut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대상에 저항하고 그들의 이상이나 그들 스스로에게 충실한 것” (1979: 5)
O'Byrne 등	“기질적인 심리적 용기는 위험을 정의하고 대안적인 행동을 확인하며 고려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2000: 6)
Plato	“존중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과 두려워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능력” (Rorty, 1988)
Putman	“심리적 안정을 잃는 것과 관련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 (1997)
Rachman	“두려움에 직면해도 견뎌내는 것” (1984)
Seligman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개인적 서신, 2001)
Shelp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실현하지 못한 선을 획득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워지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성향” (1984 :354)
Snyder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비범한 행동” (개인적 서신, 2001)

(→Lopez & Snyder (eds.), 2003에서 재인용).

용기는 정신적 용기, 신체적 용기 혹은 생명적 용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신적 용기란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확고하게 행동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용기란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이란 압도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Lopez & Snyder(eds.), 2003). 또한 O'Byrne 등 (2000→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은 세 가지 용기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째, 신체적 용기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 추구에 기초한 신체적 행동의 표현에 의해 사회적 선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정신적 용기는 의견이 불일치, 인정되지 못하는 것, 또는 거절과 같은 불편함에 직면해 확실성에 대해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생명의 용기는 성과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병이나 무능력에 대해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생리적으로 빠르게 회복한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반드시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중 앞에서 항상 생각과 행동을 표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Lopez & Snyder(eds.), 2003).

용기의 측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O'Byrne, Lopew & Petersen(2000→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은 정신적 용기는 그들이 편견에 부딪히고,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필요로 할 때 가치 있으며, 더 큰 선을 위해 자신보다 힘 있는 대상에게 맞설 때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Peterson과 Seligman(문용린 외 공역, 2009)은 용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① 확실성: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진실된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
- ② 열의와 열정: 추구하기. 도전적인 상황에서 생동감 갖기
- ③ 성실과 인내: 과제를 수행하고 도전하고 해결하기
- ④ 용맹: 위협에 맞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자세를 취하는 것

Rachman(1984→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은 겁 없음과 용기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겁이 많은 사람들도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용기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이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ase(1987→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는 현상학적이고 기술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용기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태도나 대처방법의 발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Szagun과 Schajuble(1997→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는 아동들을 위한 면접기법과,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용감하게 행동했던 상황에 대해 상황에서의 생각과 느낌에 초점을 맞춰 회상하고 묘사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이 높은 참가자들은 용기에 대한 필요조건으로서 심리적 위협에 초점을 두고 응답하도록 하였고, 어린 참가자들은 용기를 신체적 위협을 무릅쓰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Larsen과 Giles(1976→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는 용기의 두 가지 유형, 즉 실존적 용기(정신적 용기와 유사한)와 사회적 용기(신체적 용기와 관련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22개의 사회적 용기 영역과 관련된 문항과 28개의 실존적 용기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eligman과 Peterson의 긍정심리학에도 용기의 개념 정의 및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 II-3 긍정심리학에서 본 용기의 개념

핵심 덕성	강점	강점 정의
용기 courage 내적·외적 반대에 직면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의 사용을 포함하는 정서적 강점	용감함 bravery	위험, 도전,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기; 반대가 있을 때에도 옳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 평판이 나쁠 때에도 확신 갖고 행동하기
	인내 persistence	시작한 것을 끝내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것; 과제를 완수하는 것에 즐거움을 갖는 것
	진실성 integrity	가식 없음;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지기; 진실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행동함
	활력 vitality	생동적이고 활동적으로 느끼기; 일을 대충하지 않음; 삶에 흥분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가서는 것; 모험처럼 인생을 사는 것

(출처: 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62, 717)

위 표에서 용기라는 핵심 덕성이 지닌 강점으로 용감함, 인내, 진실성, 활력이 있는데, 도덕적 품성화와 관련하여 친화력이 있는 강점은 용감함, 인내이다. 진실성이나 활력은 도덕적 정체성과 보다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품성화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도덕적 동기화와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용감함과 인내 부분을 진하게 표현한 것이다.

표 II-4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용기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

용감함	1. 나는 환영받지 못할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 내어 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2.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이 비열한 언행을 하면 나는 항상 소리 높여 항의한다. 4. 비록 결과가 내게 불리하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것을 고수하곤 한다. 5. 나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지지 않고 저항한다. 6. 두려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잘 하는 편이다.
-----	--

인내	1.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2. 나는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 3.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4. 나는 일을 할 때 결코 딴 짓을 하지 않는다. 5. 나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친다. 6.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경우, 나는 인내심을 지니고 끈기 있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잘 완수해 내는 편이다.
----	---

(출처: 권석만, 2009: 256, 262)

각 덕성과 관련한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채점된다. 대체적인 결과해석은 다음과 같다. 6-9점은 해당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10-20점은 보통수준이며, 21-25점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리고 26-30점은 매우 탁월한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밖에 긍정심리학 연구에 근거한 청소년을 위한 자기보고식 성격 강점 척도(VIA-Youth) 연구에서 용기를 묻는 예시 문항도 참고할 수 있다³⁾

용기와 관련한 이상의 논의는 Rest의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 가운데 자아강도의 개념 구성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용기는 두려움에 대처하고 진실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행동이자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 절제

긍정심리학에서 절제는 다음 표와 같이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핵심 덕성으로서 절제와 관련된 강점으로 용서/자비, 겸손/겸양, 신중함, 자기 조절이 있다.

표 II-5 긍정심리학에서 본 절제의 개념

핵심 덕성	강점	강점 정의
절제 temperance 무절제를 막는 강점	용서/자비 forgiveness / mercy	잘못한 사람용서; 타인의 단점 수용; 앙심 품지 않기; 타인에게 기회 다시 주기
	겸손/겸양 humility / modesty	개인의 성취 그 자체에 가치둠; 주목받으려 하지 않기; 자랑치 않음

3) 용감함을 묻는 예시 문항 : “나는 인기가 없을 때에도 옳은 것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참지 못한다.” 인내를 묻는 예시 문항 : “나는 일을 시작하면 항상 그것을 끝마친다.”, “나는 무엇이든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 예시 문항 중 두 번째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24).

핵심 덕성	강점	강점 정의
	신중함 prudence	자신의 선택에 신중; 과도한 위험 무릅쓰지 않기; 후회 할 말이나 행동 않기
	자기 조절 self-regulation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기; 절제 있는 행동하기; 자신의 욕구와 정서를 통제하기

(출처: 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63, 718)

그런데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로서 절제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서/자비나 겸손/겸양보다는 신중함(prudence)이나 자기 조절(self-regulation)과 같은 인지적 전략 및 실천적 지혜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절제의 고전적 개념을 제안한 Aristotle(N.E., 제3권 제10장)의 견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ristotle은 쾌락의 종류를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으로 구분하고, 절제의 중요한 대상을 육체적 쾌락으로 간주한다. 절제는 쾌락에의 방종을 막고, 적절한 쾌락을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추구하는 자기통제(self-control)의 덕성이라 할 수 있다. 절제는 그 어원(sōphrosynē)을 살펴볼 때, “실천적 지혜를 보전한다(sōzousan ten phronēsin)”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절제의 능력에는 목적에 따른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나 선택의 신중함 등과 같은 실천적 지혜(phronesis/ prudence)의 측면이 함께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절제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이다.

표 II-6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절제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

신중함	1. 나는 깊이 생각한 후에 어떤 말을 하는 편이다. 2. 내 친구들은 나의 선택이 현명하다고들 말한다. 3. 나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4. 난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5. 나는 행동하기 전에 항상 그 결과를 생각해 본다. 6.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어떤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하며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편이다.
자기 조절	1. 나는 규율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다. 2.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3.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예외 없이 예정된 시간까지 한다. 4.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한다. 5.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도 난 과식하지 않는다. 6. 어떤 욕망, 충동, 감정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편이다.

(출처: 권석만, 2009: 293, 299-300)

용기를 다룰 때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덕성과 관련한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채점된다. 대체적인 결과해석은 다음과 같다. 6-9점은 절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계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10-20점은 보통수준이므로 계발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21-25점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므로 강점으로 계발하는 것이 권장되며, 26-30점은 매우 탁월한 능력이므로 대표 강점을 계발할 필요가 있다.

절제와 관련해서도 청소년을 위한 자기보고식 성격 강점 척도(VIA-Youth) 연구에서 예시 문항이 개발되어 있다.⁴⁾ 이상 논의한 절제와 관련된 신중함(prudence)과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논의하는 ‘만족감의 유예’와 친화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J. Rest의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 가운데 ‘인내’는 ‘절제’나 ‘만족감의 유예’와 호환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개념은 모두 인지적 전략 및 자기조절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항 개발시 VIA-RTO 검사의 필요성

문항 개발시 VIA-RTO 검사의 필요성(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21-722; 권석만, 2009: 183-184)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VIA-IS는 각 강점의 점수가 타인에 의해 평가된 강점 점수와 미약한 상관을 나타낸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가 하면 수박 겉핥기식 정보를 제공받은 제3의 평정자들은 평정 대상이 주어진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용감성, 공정성, 용서, 진실성, 리더십, 신중성, 자기 조절, 시민정신이 그러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강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발휘되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VIA-RTO(VIA Rising to the Occasion Inventory)는 특정 강점의 반대 경험(ex. 두려움)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문제의 강점(ex. 용기)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4) 신중함을 묻는 예시 문항 : “나는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상황이나 사람을 피한다.”, “나는 종종 부주의해서 실수를 한다.” 자기 조절을 묻는 예시 문항 : “나는 운동이나 공부계획을 일단 세우면 그것을 고수한다.”, “나는 돈이 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모두 써버린다.” 예시 문항 중 두 번째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25).

표 II-7 VIA-RTO 문항의 예(용기)

당신이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했던 실제적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① 매우 자주(1주일에 한 번 이상) ② 자주(1개월에 한 번) ③ 때때로(일 년에 몇 번) ④ 드물게(일 년에 한 번) ⑤ 거의 없음(평생에 한 번)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당신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지를 짧게 기록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당신은 용감함이나 용기가 당신의 강점이라고 말하니까? ① 분명히 그렇다. ② 아마도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아마도 아니다. ⑤ 분명히 아니다.

VIA-IS 초기 버전은 역채점 문항이 없었다. 그러나 역채점 문항의 경우, 신뢰도는 일관되게 모든 척도에서 .70을 초과했다. 역채점 문항은 역채점이 아닌 문항들에 필적할 만했다.

VIA-IS는 5회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성인 150,000명 이상의 검사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척도는 신뢰도 .07이상이었다. 최고 평균 점수는 친절, 사랑과 같은 인간애 강점이었고, 반면 최저 점수는 용서, **신중함**, 겸손 그리고 **자기 조절력**의 절제 강점이었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19). (인터넷 검사: www.viastrengths.org)

VIA-Youth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결과에서, 절제의 강점은 다른 강점에 비해 신뢰롭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인에게서 발견했듯이 청소년도 인간애 강점들의 평균 점수가 특히 높았고, 절제 강점들의 평균점수가 특히 낮았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26).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와 관련된 특정 강점은 특수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한 문장의 단문형태로 이루어진 질문 문항보다는 딜레마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스토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와 관련한 문항을 묻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평정자(학생) 자신의 도덕적 품성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역채점 문항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개발 방향과 과정

1) 개발 방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 요소와 관련된 검사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가령 용기를 실존적 용기와 사회적 용기로 유형화하여 개발된 검사도구도 있다(Larsen & Giles, 1976→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 그런가 하면 자아효능감 측정도구도 개발되었다(Sherer et al., 1982). 자아효능감 측정도구는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정택희, 1987; 이동영, 1997; 배진수·이영만, 2000→이영만, 2001에서 재인용). 그런가 하면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인 용기, 절제 등에 대한 검사도구도 개발되었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그런데 기존의 검사도구는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Ⅱ.3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덕적 품성화와 관련하여 Rest가 언급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아래의 진술은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행위한)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피로와 쇠약한 의지에 저항하며,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에 뒤따르는 충분한 인내심과 자아강도 그리고 수행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Rest, 문용린 외 공역, 2008: 24).

Rest가 규정하고 있는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 요소는 인내심, 자아강도, 수행기술이다. 도덕적 행동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들 하위요소 중 일부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절제나 만족지연능력으로서의 인내만 있다고 도덕적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행기술이 결핍되어 있다면 타인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을 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Rest가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도덕적 품성화 도구의 개발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및 하위 요소 탐구를 위해 관련 이론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인내심, 자아강도, 수행기술을 도덕적 품성화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여 이들의 요소가 측정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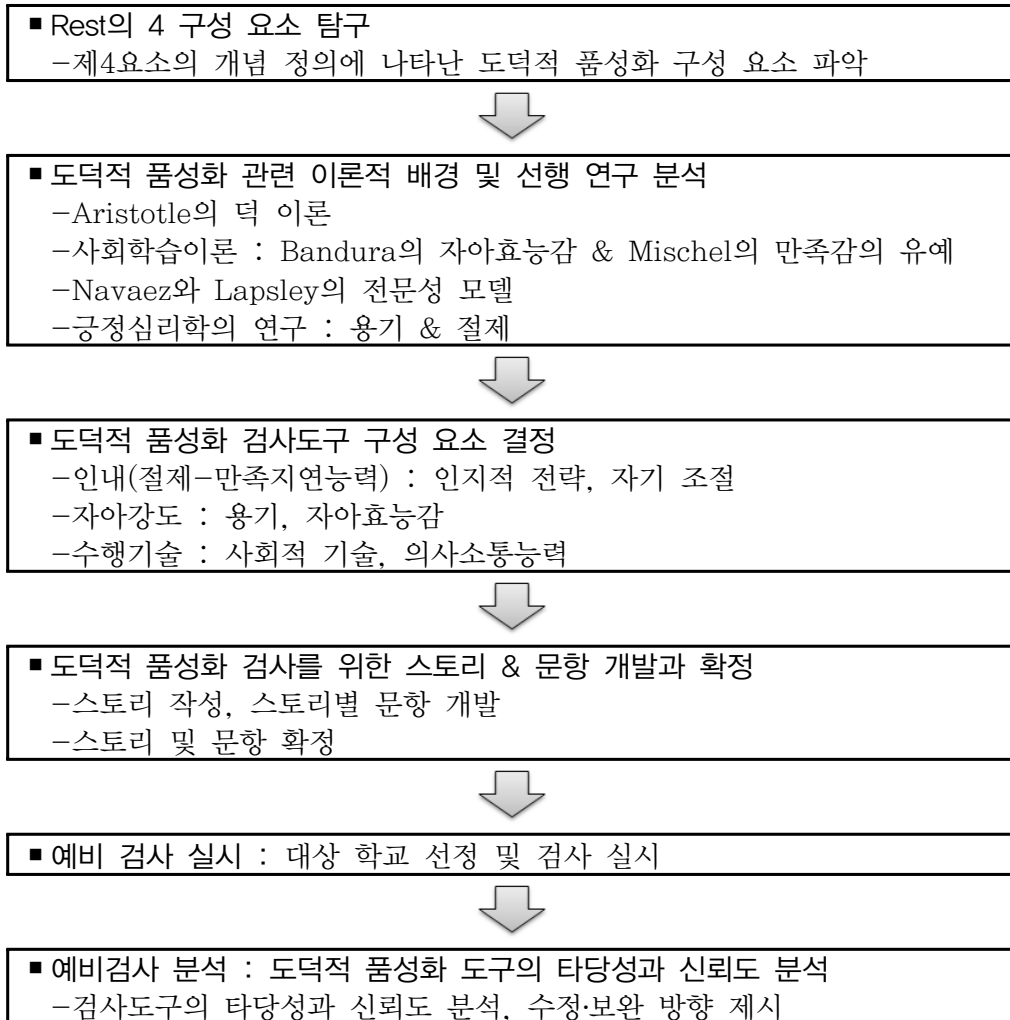
절제-만족지연능력으로서 인내는 인지적 전략과 자기 조절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으며, 자아강도는 용기와 자아효능감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고, 수행기술은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st가 정의내린 제4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덕적 품성화의 검사도구는 아직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활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를 개발하고자 한 본 연구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3가지 STORY를 제시하고, 각 스토리에 인내(인지적 전략, 자기 조절), 자아강도(용기, 자아효능감),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6문항으로 제시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문항 1개를 각각 추가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발 과정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개발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세부적인 개발 논의 과정은 〈부록2〉참고). 먼저 Rest의 4 구성요소를 이해하여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사가 개발된 바가 없어서 Rest가 제시한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 개념과 제4 요소와 관련하여 Rest가 언급한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구성요소를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도덕적 품성화 측정을 위한 구성요소는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이었다. 이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방법이 논의되었다. 특히 자아강도, 인내를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은 한 문장 길이의 질문 형태 문항이 대다수였는데, 그동안 Rest의 도덕성 관련 문항들은 딜레마 및 스토리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이 검사는 도덕성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다른 세 검사, 즉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행동과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스토리 방식의 문항을 개발하기로 협의하였다. 도덕적 품성화의 세 구성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스토리와 그에 따른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검사도구를 위한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그림Ⅱ-1】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과정

제 3 장

연구 결과

1. 개발된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2. 신뢰도 분석
3. 타당도 분석
4. 문항 분석
5. 집단별 통계 분석

제 3 장 연구 결과

1. 개발된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1) 개념 및 하위 요소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전술한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및 하위 요소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Rest(문용린 외 공역, 2008: 24쪽, 절차 4.)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심리적 절차에 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뒤따르는 충분한 인내심과 자아강도 그리고 수행기술을 네 번째 요소의 핵심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아울러 도덕적 품성화 관련 이론들을 종합하여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구성 요소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III-1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구성 요소

대항목	소항목	설명
인내 (절제-만족지연 능력)	인지적 전략	어떤 방해 및 유혹에도 원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목적 대상에 대한 인지의 전환을 통해 자기 조절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
	자기 조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고 만족을 보류하며,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아강도	용기	도덕적인 의견을 표해야 할 때, 확고하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 또한 이 경우에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의 위험에 대항하는 행동
	자아효능감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잘 해결해 왔다는 느낌, 성공경험, 대리경험이 필요함.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 및 긍정적 평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돕기 위한 사회적 기술, 갈등해결에 관련된 인지적 판단능력, 전략 구성 능력
	의사소통능력	도덕행위를 위해 자기의 판단, 느낌, 의견에 대해 공손하고, 의미 있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첫째, ‘인내’ 영역에는 인지적 전략과 자기 조절 능력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인내란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 즉,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덕적 행동과 관련해서는 만족지연능력, 혹은 절제력과 관련시켜 언급되어 왔다(Mischel, 1974). 따라서 만족지연, 절제, 인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먼저 ‘인지적 전략’은 어떤 방해 및 유혹에도 원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 인지적 전환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기 조절’이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고 만족을 보류하며,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자아강도’ 영역에는 용기와 자아효능감이 포함된다. 용기는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즉, Larsen과 Giles(1976→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는 용기의 두 가지 유형, 즉 실존적 용기(정신적 용기와 유사한)와 사회적 용기(신체적 용기와 관련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22개의 사회적 용기 영역과 관련된 문항과 28개의 실존적 용기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포함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자아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Bandura(1995: 3-5; 2003: 183-250)는 ① 성취 경험, ② 대리적 경험, ③ 사회적(언어적) 설득, ④ 생리적·정서적 상태의 네 가지 원천을 언급하고 있다. 즉 과거의 성공 경험, 동료 학습자의 모델을 통한 간접 학습 경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생리적·정서적 상태로의 변화 등을 통해 자아효능감 수준이 결정된다고 한다(이영만, 2001).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요소를 재구성하였다. 먼저 성취경험과 대리적 경험을 묶어서 ‘성공경험과 대리경험’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설득 부분’을 ‘자기의 도덕적 품성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명료히 하였다. 또한 생리적·정서적 상태는 문제 상황에 대처해서 보고하는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아효능감 측정 도구를 정택희(1987), 이동영(1997), 배진수·이영만(2000) 등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다(→이영만, 2001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이동영과 배진수 등이 사용한 하위 요인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영만(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효능감 척도는 활동시작, 활동지속, 활동수행, 혐오경험 극복이라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한 기대 혹은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효능감 검사는 원래 활동시작 능력기대 3문항, 활동지속 능력기대 5문항, 활동수행 능력기대 10문항, 그리고 혐오경험 극복 능력기대 6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선 연구들에서 문항분석 과정을 통해 3문항이 삭제되었다.

셋째, ‘수행기술’은 Rest(문용린 외 역, 2008: 39쪽 각주1번)가 수행력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돕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고 진술한 것에서 도출한 것이다.

2)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1)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도덕적 품성화 검사의 요소에 해당하는 문항과 역채점 문항 및 채점 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인지적 전략에 세 문항, 자기 조절에 세 문항으로 대항목 ‘인내’ 영역에 총 6문항이 포함된다. 용기에 세 문항, 자아효능감에 세 문항으로 대항목 ‘자아강도’ 영역에 총 6문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 세 문항, 의사소통능력에 세 문항으로 대항목 ‘수행기술’ 영역에 총 6문항이 포함된다.

표 III-2 검사 구조 및 채점 방식

문항요소		문항번호		채점방식	
대항목	소항목	그대로 채점	역채점		
인내	인지적 전략	콘서트3 어머니2 PC방1		합산하면 ‘인지적 전략’ 15점	합산하면 ‘인내’ 30점
	자기 조절	콘서트6 PC방3	어머니7	합산하면 ‘자기 조절’ 15점	
자아강도	용기	콘서트2 어머니3 PC방2		합산하면 ‘용기’ 15점	합산하면 ‘자아강도’ 30점
	자아효능감	콘서트4 어머니4 PC방7		합산하면 ‘자아효능감’ 15점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콘서트5 PC방4	어머니1	합산하면 ‘사회적 기술’ 15점	합산하면 ‘수행기술’ 30점
	의사소통 능력	콘서트7 어머니5 PC방6		합산하면 ‘의사소통능력’ 15점	
허위문항		콘서트1 어머니6 PC방5		합산하면 15점	
합산하면 ‘도덕적 품성화’ 90점 만점					

(2) 사례별 문항 구성

도덕적 품성화 검사를 사례별로 다시 정리하면, 콘서트, 어머니, PC방의 세 가지 사례로 구성되며 각 사례마다 6문항(3개 하위요소x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므로 5점 만점이다. 총 18개 문항이어서 도덕적 품성화의 총점은 90점 만점이 된다. 역코딩 문항은 총 2개로서 어머니 사례의 1번과 7번 문항이다.

표 III-3 사례별 도덕적 품성화 하위 요소

스토리	문항번호	도덕적 품성화 하위 요소	허위 반응 체크문항
콘서트(를 가다)	1번	허위 문항	1번 (콘서트)
	2번	용기	
	3번	인지적 전략	
	4번	자아효능감	
	5번	사회적 기술	
	6번	자기 조절	
	7번	의사소통능력	
어머니(의 심부름)	1번	사회적 기술	6번 (어머니)
	2번	인지적 전략	
	3번	용기	
	4번	자아효능감	
	5번	의사소통능력	
	6번	허위문항	
	7번	자기 조절	
PC 방(에서)	1번	인지적 전략	5번 (PC방)
	2번	용기	
	3번	자기 조절	
	4번	사회적 기술	
	5번	허위문항	
	6번	의사소통능력	
	7번	자아효능감	

2. 신뢰도 분석

1) 내적 일치도

신뢰도 점검을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를 하위 요소별로 산출하였다(〈표 Ⅲ-4〉). 도덕적 품성화 전체의 신뢰도는 .75로 받아들일만 하였으나, 세부 하위 요소로 나눌 때에는 .22에서 .59로 불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Ⅲ-4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별 신뢰도 계수

	문항수	신뢰도 계수
인내	6	.47
자아강도	6	.59
수행기술	6	.22
도덕적 품성화 전체	18	.75

(N=262)

도덕적 품성화 전체 문항이 아니라, 각 하위 영역별로 신뢰도 계수를 구할 때 각 문항별 제거 후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 어머니 3번의 용기 문항과 어머니 7번의 자기 조절 문항이 가장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Ⅲ-5 도덕적 품성화의 각 하위요소별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문항요소		문항번호	문항삭제 된 경우 Cronbach α
대항목	소항목		
인내	인지적 전략	콘서트3	.384
		어머니2	.495
		PC방1	.229
	자기 조절	콘서트6	.351
		어머니7	.667
		PC방3	.237
자아강도	용기	콘서트2	.537
		어머니3	.567
		PC방2	.550
	자아효능감	콘서트4	.507
		어머니4	.541
		PC방7	.541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콘서트5	.411
		어머니1	.380
		PC방4	.046
	의사소통능력	콘서트7	.095
		어머니5	.189
		PC방6	-.240 ^a

2) 문항별 신뢰도

도덕적 품성화 전체 문항을 가지고 신뢰도 계수를 구할 때 각 문항별 제거 후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 콘서트 5번의 사회적 기술 문항과 어머니 7번의 자기 조절 문항이 가장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III-6 도덕적 품성화 전체의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스토리	문항번호	하위요소	문항삭제 된 경우 Cronbach α
콘서트(를 가다)	1번	허위문항	허위문항
	2번	용기	.731
	3번	인지적 전략	.723
	4번	자아효능감	.725
	5번	사회적 기술	.780
	6번	자기 조절	.723
	7번	의사소통능력	.728
어머니(의 심부름)	1번	사회적 기술	.767
	2번	인지적 전략	.737
	3번	용기	.745
	4번	자아효능감	.735
	5번	의사소통능력	.741
	6번	허위문항	허위문항
	7번	자기 조절	.787
PC 방(에서)	1번	인지적 전략	.706
	2번	용기	.711
	3번	자기 조절	.705
	4번	사회적 기술	.708
	5번	허위문항	허위문항
	6번	의사소통능력	.705
	7번	자아효능감	.722

3. 타당도 분석

1) 구인 타당도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III-7>. 공통인

1요인이 존재하고, 2요인은 어머니7, 어머니3, 어머니1, 어머니5번 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간의 상관은 <표Ⅲ-8>과 같이 .2에서 .3에 이르는 높지 않은 상관을 보여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패턴행렬은 원래 예상했던 도덕적 품성화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이 아닌 사례별로 묶이는 경향을 보였다. 즉, 5이상인 것으로 표시해 보았을 때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로 묶인 것이 아니고, <콘서트를 가다가>, <PC방에서>의 두 요인으로 묶이고 나머지 문항들이 다시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Ⅲ-7 도덕적 품성화의 탐색적 요인 분석

		원래 값 성분*				패턴행렬 성분**			
		1	2	3	4	1	2	3	4
인내	콘서트3	<u>.624</u>	-.473	.107	.015	.034	.739	-.017	.138
	어머니2	<u>.407</u>	.042	-.450	-.267	.127	.123	<u>.635</u>	-.108
	pc방1	<u>.651</u>	.450	.321	-.141	<u>.876</u>	.021	-.022	-.042
	콘서트6	<u>.665</u>	-.421	.104	-.045	.113	<u>.726</u>	.032	.085
	어머니7	-.359	-.018	<u>.676</u>	.185	.053	-.057	<u>-.782</u>	-.009
	pc방3	<u>.646</u>	.418	.279	-.129	<u>.826</u>	.036	.005	-.024
자아 강도	콘서트2	<u>.534</u>	-.556	.104	-.091	-.039	<u>.791</u>	.011	.000
	어머니3	.364	.075	<u>-.711</u>	-.300	.015	.026	<u>.880</u>	-.107
	pc방2	<u>.627</u>	.304	.208	-.133	<u>.700</u>	.112	.055	-.023
	콘서트4	<u>.612</u>	-.520	.083	.071	-.038	<u>.757</u>	-.032	.199
	어머니4	.399	.303	-.341	.062	.249	-.156	<u>.395</u>	.232
	pc방7	<u>.526</u>	.254	-.015	.496	.284	-.076	-.097	<u>.671</u>
수행 기술	콘서트5	<u>-.579</u>	.513	-.089	.222	-.055	<u>-.800</u>	-.106	.126
	어머니1	.020	-.284	<u>.452</u>	-.113	.059	<u>.379</u>	-.373	-.205
	pc방4	<u>.656</u>	.448	.248	-.195	<u>.862</u>	.022	.073	-.086
	콘서트7	<u>.500</u>	-.201	-.081	.525	-.103	.291	-.108	<u>.698</u>
	어머니5	.390	-.086	<u>-.534</u>	.349	-.232	.078	.376	<u>.565</u>
	pc방6	<u>.622</u>	.441	.147	.231	<u>.641</u>	-.101	-.064	.383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a. 추출된 4 성분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있는 프로맥스. a. 6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됨.

표 Ⅲ-8 도덕적 품성화의 탐색적 성분 간의 상관

성분	1	2	3
2	.245		
3	.157	.140	
4	.330	.236	.328

확인적 요인 분석은 3개의 원래 대항목을 세 요인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표 Ⅲ-9). 공통인 1요인이 존재하고, 2요인은 어머니3, 어머니7, 어머니 5번 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의 패턴행렬에서도 원래 예상했던 도덕적 품성화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이 아닌 사례별로 묶이는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다. 즉, 5이상인 것으로 표시해 보았을 때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로 묶인 것이 아니고, 〈PC방에서〉, 〈콘서트를 가다가〉, 〈어머니의 심부름〉의 세 요인으로 묶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 후의 요인 간의 상관은 〈표Ⅲ-9〉와 같이 .2에서 .3에 이르는 높지 않은 상관을 보여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도덕적 품성화의 확인적 요인 분석

문항 번호	원래 값 성분*			문항 번호	패턴행렬 성분**		
	1	2	3		1	2	3
콘서트6	<u>.665</u>	-.421	.104	pc방1	<u>.874</u>	-.004	-.102
pc방4	<u>.656</u>	.448	.248	pc방4	<u>.843</u>	-.013	-.028
pc방1	<u>.651</u>	.450	.321	pc방3	<u>.827</u>	.015	-.066
pc방3	<u>.646</u>	.418	.279	pc방6	<u>.772</u>	-.043	.063
pc방2	<u>.627</u>	.304	.208	pc방2	<u>.695</u>	.095	-.013
콘서트3	<u>.624</u>	-.473	.107	pc방7	<u>.497</u>	.045	.179
pc방6	<u>.622</u>	.441	.147	콘서트4	-.013	<u>.810</u>	.009
콘서트4	<u>.612</u>	-.520	.083	콘서트2	-.077	<u>.805</u>	-.037
콘서트5	<u>-.579</u>	.513	-.089	콘서트5	.025	<u>-.787</u>	.005
pc방7	<u>.526</u>	.254	-.015	콘서트3	.041	<u>.778</u>	-.007
콘서트7	<u>.500</u>	-.201	-.081	콘서트6	.104	<u>.752</u>	.013
어머니4	.399	.303	-.341	콘서트7	.097	.432	.183
콘서트2	.534	<u>-.556</u>	.104	어머니3	-.049	-.007	<u>.814</u>
어머니3	.364	.075	<u>-.711</u>	어머니7	.081	-.049	<u>-.770</u>
어머니7	-.359	-.018	<u>.676</u>	어머니5	-.080	.186	<u>.623</u>
어머니5	.390	-.086	<u>-.534</u>	어머니2	.067	.094	<u>.559</u>
어머니1	.020	-.284	.452	어머니1	-.007	.351	-.482
어머니2	.407	.042	-.450	어머니4	.315	-.126	.480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a. 추출된3 성분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프로맥스. a. 5반복계산에서 요인 회전이 수렴됨

표 Ⅲ-10 도덕적 품성화의 확인적 성분 간의 상관

성분	1	2
2	.314	1.000
3	.239	.208

이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품성화의 구인보다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스토리는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 〈콘서트를 가다가〉의 스토리는 급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할머니와 뺑소니차량을 목격하고 자신이 할 행동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어머니의 심부름〉은 자기의 신체적인 불편과 친구와의 약속 및 어머니의 요청 사이의 갈등을 포함하는 스토리였고, 〈PC방에서〉는 친구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후의 자신의 행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표 Ⅲ-14〉에서 제시된 품성화 요인 구성에 따른 탐색적인 요인 분석 결과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내 요인은 인지적 전략과 자기조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로는 콘서트 딜레마와 어머니 딜레마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며, PC방 딜레마는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경향이었다, 자아강도는 용기와 자아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 콘서트 딜레마는 단독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고, 어머니 딜레마와 PC방 딜레마가 통합하여 구성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수행기술은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 콘서트 딜레마와 PC방 딜레마가 하나로 통합되며, 어머니 딜레마는 단독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에서 제시된 각 요인 분석의 종합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문항별 분석 결과는 각 딜레마별로 구별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PC방 딜레마의 5번 문항의 경우는 허위문항으로 이론적으로 구성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요인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방 딜레마의 7번 문항이 더욱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나 7번 문항이 허위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딜레마의 경우는 최대우도법으로 추출한 방법에서는 허위문항으로 지정된 6번 문항이 요인으로 통합되는 형태가 나타나 이 또한 어머니 4번 문항이 더욱 허위문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각 요인별 분석에서는 다소 다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 때문 허위문항으로 설정된 문항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특히 어머니 딜레마가 부적절하게 적용되었다는 결과가 최대우도 방법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 딜레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별 분석에서는 이론에서 근거로 해서 하면 전혀 다른 요인끼리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차기년도에는 새롭게 요인이 구성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표 III-11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 분석(인내)

		주성분분석 VARIMAX		최대우도 D. Oblimin	
		성분		성분	
		1	2	1	2
인지적 전략	콘서트3	.330	<u>.586</u>	.231	<u>.676</u>
	어머니2	-.002	<u>.651</u>	.159	.252
	pc방1	<u>.891</u>	.042	<u>.997</u>	.310
자기조절	콘서트6	.399	<u>.639</u>	.332	<u>.816</u>
	어머니7	-.091	<u>.697</u>	.072	.252
	pc방3	<u>.884</u>	.094	<u>.706</u>	.347

표 III-12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 분석(자아강도)

		주성분분석 VARIMAX		최대우도 D. Oblimin	
		성분		성분	
		1	2	1	2
용기	콘서트2	<u>.856</u>	.010	<u>.657</u>	.206
	어머니3	-.031	<u>.702</u>	.144	.457
	pc방2	.351	.404	.241	.247
자아 효능감	콘서트4	<u>.850</u>	.113	<u>.843</u>	.288
	어머니4	-.001	<u>.795</u>	.164	<u>.772</u>
	pc방7	.261	<u>.529</u>	.245	.343

표 III-13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 분석(수행기술)

		주성분분석 VARIMAX		최대우도 D. Oblimin	
		성분		성분	
		1	2	1	2
사회적 기술	콘서트5	<u>.569</u>	.032	.228	.342
	어머니1	-.264	<u>.603</u>	.045	-.007
	pc방4	<u>.778</u>	-.060	<u>.996</u>	.256
의사소통능력	콘서트7	.443	.519	.059	<u>.726</u>
	어머니5	.187	<u>.787</u>	.009	.438
	pc방6	<u>.762</u>	.120	.523	.400

표 III-14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 분석 결과 종합

이론근거 준거			전체문항별 분석						각 요인별 분석			
			주성분분석 VARIMAX			최대우도법 Direct Oblimin			주성분분석 VARIMAX		최대우도법 Direct Oblimin	
			1	2	3	1	2	3	1	2	1	2
인 내	인지적 전략	콘서트3		●			●			●		●
		어머니2			제거			●		●		제거
		PC방1	●			●			●		●	
	자기 조절	콘서트6		●			●			●		●
		어머니7			●(-)			●		●		제거
		PC방3	●			●			●		●	
자 아 강 도	용 기	콘서트2		●			●		●		●	
		어머니3			●			●		●		제거
		PC방2	●			●				제거		제거
	자아 효능감	콘서트4		●			●		●		●	
		어머니4			제거			제거		●		●
		PC방7	제거			제거				●		제거
수 행 기 술	사회적 기술	콘서트5		●(-)			●		●			제거
		어머니1			●(-)			제거		●	제거	
		PC방4	●			●			●		●	
	의사 소통 능력	콘서트7		제거			제거			제거		●
		어머니5			●			●		●		제거
		PC방6	●			●			●		제거	
허위문항		콘서트1		제거			제거					
		어머니6			제거			●(-)				
		PC방5	●(-)			●(-)						

2) 상관분석

요인 간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표 Ⅲ-15). 상관관계 분석 후 소항목 간의 상관은 .123에서 .685이어서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도덕적 품성화 소항목과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도덕적 품성화 구성요소		인내-인지적 전략	인내-자기 조절	자아강도-용기	자아강도-자아효능감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수행기술-의사소통능력
소항목	인내-인지전략	1					
	인내-자기 조절	.472**					
	자아강도-용기	.685**	.293**				
	자아강도-자아효능감	.546**	.260**	.476**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214**	.357**	.111	.086		
	수행기술-의사소통능력	.527**	.261**	.482**	.561**	.123*	
대항목	인내	.869**	.846**	.569**	.472**	.332**	.464**
	자아강도	.711**	.320**	.837**	.879**	.114	.610**
	수행기술	.518**	.401**	.425**	.470**	.669**	.820**
도덕적 품성화 총점		.842**	.618**	.741**	.737**	.421**	.742**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대항목 간의 상관은 .522에서 .602로서, 대항목간 독립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항목과 도덕적 품성화 총점과도 상관은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덕적 품성화 전체에 있어 대항목의 요소는 안정적인 구인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도덕적 품성화 대항목 간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
자아강도	.602**		
수행기술	.539**	.522**	
도덕적 품성화 총점	.855**	.861**	.798**

4. 문항 분석

1) 도덕 품성화 문항 분석

각 문항별 받은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57~92%에 이르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소 편향된 모습이 있었다. 이는 학생 자신의 품성화 수준을 진단하기보다는 기대되는 방향으로 응답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내용 타당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콘서트를 가다가〉의 사회적 기술 문항의 경우 문항 분포가 다른 문항에 비해 매우 편파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 다른 문항과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표 III-17 ‘콘서트를 가다가’ 스토리의 문항 분포

콘서트를 가다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인 내	인지적 전략	3. 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99 (37.8)	106 (40.5)	41 (15.6)	9 (3.4)	4 (1.5)	
	자기 조절	6. 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	123 (46.9)	118 (45.0)	14 (5.3)	2 (.8)	3 (1.1)	
자 아 강 도	용기	2.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야 된다.	100 (38.2)	116 (44.3)	33 (12.6)	8 (3.1)	3 (1.1)	
	자아효능감	4. 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96 (36.6)	119 (45.4)	28 (10.7)	14 (5.3)	3 (1.1)	
수 행 기 술	사회적 기술	5.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4)	2 (.8)	12 (4.6)	98 (37.4)	147 (56.1)	
	의사소통능력	7.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104 (39.7)	120 (45.8)	28 (10.7)	5 (1.9)	3 (1.1)	
허위문항		1. 나는 차량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25 (9.5)	43 (16.4)	30 (11.5)	69 (26.3)	91 (34.7)	

표 III-18 ‘어머니의 심부름’ 스토리의 문항 분포

어머니의 심부름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인내	인지적 전략	2. 심부름을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0 (30.5)	137 (52.3)	33 (12.6)	10 (3.8)	0(0)
	자기 조절	7.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어린 동생을 데리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역채점)	75 (28.6)	109 (41.6)	46 (17.6)	23 (8.8)	7 (2.7)
자아강도	용기	3.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	71 (27.1)	137 (52.3)	42 (16.0)	9 (3.4)	1 (4)
	자아효능감	4. 어머니의 심부름처럼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하는 편이다.	42 (16.0)	108 (41.2)	73 (27.9)	32 (12.2)	5 (1)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1.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 같다. (역채점)	18 (6.9)	39 (14.9)	23 (8.8)	128 (48.9)	52 (19.8)
	의사소통능력	5.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친구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75 (28.6)	133 (50.8)	40 (15.3)	10 (3.8)	5 (1.9)
허위문항		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	3 (1.1)	6 (2.3)	25 (9.5)	133 (50.8)	93 (35.5)

표 III-19 ‘PC방에서’ 스토리의 문항 분포

PC방에서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인내	인지적 전략	1.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95 (36.3)	97 (37.0)	43 (16.4)	18 (6.9)	7 (2.7)
	자기 조절	3. 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66 (25.2)	90 (34.4)	60 (22.9)	34 (13.0)	10 (3.8)
자아강도	용기	2.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67 (25.6)	116 (44.3)	47 (17.9)	24 (9.2)	6 (2.3)

PC방에서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자아효능감	7.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48 (18.3)	94 (35.9)	86 (32.8)	22 (8.4)	10 (3.8)
수행 기술	사회적 기술	4.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74 (28.2)	108 (41.2)	47 (17.9)	24 (9.2)	7 (2.7)
	의사소통능력	6.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	52 (19.8)	105 (40.1)	57 (21.8)	36 (13.7)	10 (3.8)
허위문항		5. 이제는 밥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13 (5.0)	34 (13.0)	51 (19.5)	88 (33.6)	74 (28.2)

2) 허위 문항 분석

(1) 허위 문항의 채점과 반응

본 검사에서는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각 사례별로 허위문항을 포함시켰다. 허위문항은 피험자가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바람직해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문항들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을 실시했다.

표 III-20 사례별 허위 문항

	⑤ 매우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콘서트1. 나는 차량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어머니의 심부름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 집에 가지 않겠다.	☐	☐	☐	☐	☐
PC 방에서 5. 이제는 밥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	☐	☐	☐	☐

도덕적 품성화 검사지의 허위 반응 체크 방식은 각 사례별로 한 문항씩 허위반응을 포함하였다(표Ⅲ-20). 분석 결과 아래의 <표Ⅲ-21>에서 보듯이 0에서 15점 중에서 응답자의 분포는 3점에서 12점에 이르며 평균은 약 7점이었다(표Ⅲ-22). 이와 같은 반응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결과이며, 실제로 세 개의 허위문항에서 모두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극단적인 경우는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피험자가 없으므로 모든 데이터를 수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표 Ⅲ-21 허위 문항의 반응 결과(빈도)

허위문항 점수합	빈도(%)
3.00	21(8.0)
4.00	23(8.8)
5.00	31(11.8)
6.00	51(19.5)
7.00	55(21.0)
8.00	37(14.1)
9.00	22(8.4)
10.00	11(4.2)
11.00	5(1.9)
12.00	2(.8)
합계	258(98.5)
MISSING	4(1.5)
합계	262(100.0)

표 Ⅲ-22 허위문항의 반응결과(평균,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허위문항
평균	6.53
최빈값	7.00
표준편차	1.987
최소값	3.00
최대값	12.00

피험자의 허위점수는 허위 문항에 극단적인 반응을 했을 때 1점, 그렇지 않을 때 0점을 주어 구했다. 결국 만약 허위 문항 모두에서 극단적(허위적, 빗금 친 부분)으로 반응했을 경우 총 15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본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Ⅲ-21>, <표Ⅲ-22>과 같이 허위문항에 반응한 258명 중에서 단 한 명도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피험자를 찾지 못했으며, 최고 허위 점수가 12점으로 그 점수를 받은 비율 또한 전체 0.8%에 불과하였다. 이는 검사에서 무성의한 피험자를 골라낼 수 있는 장치로서 이 허위문항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대상 피험자 중 한 쪽으로만 무성의하게 응답하는 피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허위 문항의 분석

사례별 허위문항 반응을 살펴보면, 다른 허위문항보다 콘서트1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것이 사례의 첫째 문항으로 제시되면서 학생들이 검사의 특징을 파악하기 전에 응답하게 되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허위문항이 문항의 맨 앞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표Ⅲ-23>.

표 Ⅲ-23 사례별 허위문항의 반응

	⑤ 매우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콘서트1. 나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5 (9.5)	43 (16.4)	30 (11.5)	69 (26.3)	91 (34.7)
어머니의 심부름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 집에 가지 않겠다.	3 (1.1)	6 (2.3)	25 (9.5)	133 (50.8)	93 (35.5)
PC 방에서5. 이제는 밥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13 (5.0)	34 (13.0)	51 (19.5)	88 (33.6)	74 (28.2)

허위문항과 도덕적 품성화 및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내, 자기 조절과 사회기술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역상관을 보임으로써< 표Ⅲ-24>, 허위문항은 학생들의 허위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24 허위문항과 도덕적 품성화 하위영역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허위문항
도덕적 품성화 전체		-.378**
구성요소	인내	-.309**
	자아강도	-.395**
	수행기술	-.246**
구성요소의 하위영역	인내-인지적 전략	-.419**
	인내-자기 조절	-.119
	자아강도-용기	-.397**
	자아강도-자아효능감	-.288**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028
	수행기술-의사소통능력	-.305**

허위문항의 학교급별, 성별 차이를 분석하면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등학생이 허위문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성별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5>.

표 Ⅲ-25 허위문항의 학교급별, 성별 차이 유의도 분석

구분	학교급별		성별	
	중학생(N=116)	고등학생(N=143)	남(N=120)	여(N=139)
평균(SD)	6.06 (1.89)	6.91(1.99)	6.54 (2.04)	6.52(1.95)
t 값	-3.48		.08	
유의도	.00		.94	

5. 집단별 통계 분석

1) 전체 평균 및 분포

도덕적 품성화 전체 및 대항목, 소항목의 전체 평균 및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Ⅲ-26, 27>와 같다. 도덕적 품성화 전체는 만점이 90점일 때 최대값이 81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66.48이었다.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 각각이 30점이 만점일 때 수행기술만 26점이 최대값이었고, 나머지는

만점이 최대값이었다. 대항목 중에서 자아강도가 가장 넓은 분포를 보였다. 도덕적 품성화의 소항목에서는 사회적 기술을 제외하고 모두 만점이 최대값으로 나타났다. 평균역시 사회적 기술이 가장 작은 8.95를 보여주었다.

표 III-26 도덕적 품성화의 평균 및 분포(대항목, 도덕적 품성화 전체)

통계치	대항목			도덕적 품성화 전체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	
N	259	260	260	259
평균	22.38	23.28	20.79	66.48
최빈값	22.00	22.00	22.00	67.00
표준편차	2.931	3.140	2.553	7.236
왜도	-.551	-.154	-.220	-.254
첨도	1.191	.073	.393	.577
최소값	11.00	12.00	12.00	35.00
최대값	30.00	30.00	26.00	81.00

표 III-27 도덕적 품성화의 평균 및 분포(소항목)

	인내- 인지적 전략	인내- 자기 조절	자아강도- 용기	자아강도- 자아 효능감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수행기술- 의사소통능력
N	259	260	260	260	260	260
평균	12.20	10.16	12.02	11.27	8.95	11.84
최빈값	12.00	10.00	11.00	11.00	10.00	12.00
표준편차	1.772	1.662	1.700	1.95	1.474	1.912
왜도	-.671	-.336	-.243	-.318	-.614	-.391
첨도	1.260	.765	.057	-.107	.866	.266
최소값	4.00	4.00	6.00	6.00	4.00	5.00
최대값	15.00	15.00	15.00	15.00	13.00	15.00

2) 학교급별 비교

도덕적 품성화 전체 및 대항목, 소항목의 학교급별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덕적 품성화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항목에서 자아강도-용기, 사회적 기술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표 III-28 학교급별 도덕적 품성화의 비교

구 분		중학생(N=116)		고등학생(N=143)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항목	인내-인지적 전략	12.43	1.59	12.01	1.89	1.86	.64
	인내-자기 조절	10.25	1.54	10.09	1.75	.77	.44
	자아강도-용기	12.42	1.49	11.69	11.4	3.54	.00
	자아강도-자아효능감	11.12	2.02	11.38	9.09	-1.07	.29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9.15	1.38	8.79	1.53	1.96	.05
	수행기술-의사소통능력	11.70	1.93	11.96	1.89	-1.08	.28
대항목	인내	22.68	2.53	22.14	3.21	1.48	.14
	자아강도	23.54	2.96	23.07	3.27	1.21	.23
	수행기술	20.84	2.43	20.75	2.66	.30	.77
도덕적 품성화 총점		67.07	6.26	66.01	7.93	1.20	.23

3) 성별 비교

(1) 전체 집단 (중+고)의 성차

도덕적 품성화 총점을 보면, 남학생(64.9)이 여학생(67.8)보다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대항목의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에서도 모두 여학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소항목에서도 자아강도의 용기와 자아효능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대상 청소년의 도덕적 품성화에서는 성차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9 도덕적 품성화의 남녀 성차

구 분		남(N=120)		여(N=139)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항목	인내-인지전략	11.91	1.95	12.46	1.56	-2.53	.01

구 분		남(N=120)		여(N=139)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인내-자기 조절	9.79	1.80	10.48	1.47	-3.35	.01
	자아강도-용기	11.85	1.81	12.16	1.59	-1.46	.15
	자아강도-효능	11.02	2.02	11.47	1.87	-1.86	.06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8.72	1.66	9.15	1.26	-2.34	.02
	수행기술-의사소통능력	11.52	1.94	12.12	1.85	-2.56	.01
대항목	인내	21.73	3.27	22.88	2.48	-3.38	.00
	자아강도	22.88	3.19	23.63	3.06	-1.95	.05
	수행기술	20.24	2.78	21.27	2.24	-3.32	.00
도덕적 품성화 총점		64.90	7.74	67.85	6.49	-3.33	.00

(2) 중학생 집단의 성차

중학생의 도덕적 품성화의 남녀차를 살펴보면, 남학생(67.5)과 여학생(66.7) 간에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각 하위요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 중학생의 도덕적 품성화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30 중학생의 도덕적 품성화의 성차

구 분		남(N=58)		여(N=58)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 항 목	인내-인지적 전략	12.59	1.65	12.28	1.53	1.05	.30
	인내-자기 조절	10.26	1.66	10.24	1.43	.06	.95
	자아강도-용기	12.64	1.41	12.21	1.55	1.57	.12
	자아강도-자아효능감	11.19	2.22	11.05	1.82	.37	.72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9.09	1.59	9.21	1.15	-.47	.64

구 분		남(N=58)		여(N=58)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행기술-의사소통능력	11.72	1.87	11.72	2.01	.14	.89
대 항 목	인내	22.84	2.82	22.52	2.21	.70	.49
	자아강도	23.83	2.93	23.26	2.99	1.04	.30
	수행기술	20.81	2.70	20.88	2.14	-.15	.30
도덕적 품성화 총점		67.48	6.76	66.66	5.74	.71	.48

(3) 고등학생 집단의 성차

고등학생의 도덕적 품성화의 총점은 중학생과는 달리 여학생(68.7)이 남학생(62.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세 가지 하위요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고등학생의 도덕적 품성화에서는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31 고등학생의 도덕적 품성화의 남녀차

구 분		남(N=62)		여(N=81)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 항 목	인내-인지적 전략	11.27	2.01	12.59	1.58	-4.39	.000
	인내-자기 조절	9.37	1.83	10.65	1.48	-4.69	.000
	자아강도-용기	11.13	1.84	12.12	1.63	-3.44	.001
	자아강도-자아효능감	10.87	1.83	11.78	1.86	-2.91	.004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8.38	1.67	9.11	1.33	-2.92	.004
	수행기술-의사소통능력	11.33	1.99	12.44	1.67	-3.64	.000
대 항 목	인내	20.69	3.35	23.25	2.62	-5.11	.000
	자아강도	22.00	3.20	23.90	3.10	-3.60	.000
	수행기술	19.71	2.78	21.56	2.27	-4.38	.000
도덕적 품성화 총점		62.48	7.87	68.70	6.89	-5.03	.000

제 4 장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활용 방안 및 정책 방안
3. 2차년도 연구 세부 계획

제 4 장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하여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est의 4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4 요소(도덕적 품성 내지 실행력)의 개념 정의에서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였다.

둘째,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이론적 구조를 구성하였다.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 요소를 대항목 및 소항목 수준에서 확정하기 위해 Rest가 규정한 제4요소의 개념 정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제4요소와 관련하여 Rest가 언급한 도덕적 품성화 관련 이론들을 참고하였다. 참고한 이론으로 Aristotle의 덕 이론, Bandura의 자아효능감, Mischel의 만족감의 유예, Navaez와 Lapsley의 전문성 모델, 용기와 절제에 관한 긍정심리학의 연구 등이다.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요소로 대항목에는 인내(절제-만족지연능력), 자아강도, 수행기술이 확정되었으며, 인내의 소항목으로 인지적 전략과 자기 조절, 자아강도의 소항목으로 용기와 자아효능감, 수행기술의 소항목으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이 선정되었다.

셋째, 도덕적 품성화 검사의 문항 형태를 결정하였는데, 확정된 도덕적 품성화 구성요소의 6개 소항목을 모두 질문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개발하였다. 〈콘서트를 가다가〉, 〈어머니의 심부름〉, 〈PC 방에서〉의 스토리가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허위반응을 검토하기 위한 허위문항을 각 스토리별로 하나씩 추가하였다.

넷째,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262명이며, 중학생은 116명(44.3%), 고등학생은 146명(55.7%)이고, 남학생은 123명(46.9%), 여학생은 139명(53.1%)이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품성화에 포함되는 18문항 모두를 함께 분석했을 때 신뢰도 계수는 .75로 안정적이었다. 타당도와 관련해서 요인분석 결과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대항목의 요소(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별이 아닌 스토리별로 구인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분석의 결과는 각 요인이 적절한 정도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독립적인 구인이며, 세 개의 대항목이 도덕적 품성화 전체와의 상관이 .80에 이르러 도덕적 품성화의 안정적인 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분석의 결과 응답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에 전반적으로 편향된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허위문항 분석 결과 무성의한 응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집단별 통계 분석결과 도덕적 품성화 검사의 결과는 90점 만점에 최소 35점, 최대 81점, 평균 66점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차의 경우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이후 검사도구가 좀 더 안정되면 이와 같은 원점수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누적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적 품성화 정도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수정된 검사의 예시를 부록3에 제시하였다. 특히 이 수정된 검사도구에 서는 스토리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각 스토리 내에서는 묻는 문항 수를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스토리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인내심, 자아 강도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형식인 단문형 문항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 방식(수정안)과 단문형을 결합하면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IV-1 2차년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개발 방향

문항형식	문항요소		문항번호	채점방식	
	대항목	소항목	그대로 채점		
스토리별 문항	인내	인지적 전략	콘서트3 어머니2 PC방1	합산하면 ‘인지적 전략’ 15점	합산하면 ‘인내’ 30점
		자기 조절	콘서트6 어머니7 PC방3	합산하면 ‘자기 조절’ 15점	
	자아강도	용기	콘서트2 어머니3 PC방2	합산하면 ‘용기’ 15점	합산하면 ‘자아강도’ 30점

문항형식	문항요소		문항번호	채점방식	
	대항목	소항목	그대로 채점		
		자아효능감	콘서트4 어머니4 PC방7	합산하면 '자아효능감' 15점	합산하면 '수행기술' 30점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콘서트5 어머니1 PC방4	합산하면 '사회적 기술' 15점	
		의사소통 능력	콘서트7 어머니5 PC방6	합산하면 '의사소통능력' 15점	
	허위문항		콘서트1 어머니6 PC방5		합산하면 15점
단문형 문항 (2차년도에 만들어야 할 문항임)	인내	인지적 전략	3	합산하면 '인지적 전략' 15점	합산하면 '인내' 30점
		자기 조절	3	합산하면 '자기 조절' 15점	
	자아강도	용기	3	합산하면 '용기' 15점	합산하면 '자아강도' 30점
		자아효능감	3	합산하면 '자아효능감' 15점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3	합산하면 '사회적 기술' 15점	합산하면 '수행기술' 30점
		의사소통 능력	3	합산하면 '의사소통능력' 15점	
합산점수는 180/2=90점(다른 요소와 동등하게 90점으로 맞추기위해서 2로 나눔)					

2. 활용 방안 및 정책 방안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교육행정부처, 각급 학교, 기관, 청소년 개인 수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행정부처에서는 매년 청소년의 도덕적 품성화의 정도를 지표화하여 보관함으로써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각급 학교,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화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 약화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셋째, 학생 개인 수준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품성화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기 주도적 인성교육을 위한 동기를 갖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추후 청소년 관련 후속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2차년도 연구 세부 계획

청소년 도덕성 발달(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연구의 2차년도 총괄목표는 두 수준으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2차년도 상반기 연구는 1차년도 연구결과 수정된 검사도구에 대한 예비 검사를 통해 총괄적인 진단, 약점 및 문제점을 더 보완하여 검사도구의 최종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2차년도 하반기에 전국 단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여 검사도구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1차년도의 연구에서 드러난 약점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2차년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품성화의 측정 개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도덕적 품성화는 국내·외에 선행 검사가 없는 새로운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에서도 타당화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 도덕 행동을 한 사례에 대한 심층 면접 및 관련 기록의 분석을 포함하여 타당성 검증에 더 초점을 두도록 한다.

둘째, 위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1차년도에 제시된 검사도구를 수정 보완한다. 특히 이번 1차년도 예비검사 실시 및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스토리별 문항 구성의 형태에 더하여, 대항목 구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토리가 없는 문항 및 정답식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여 포함시킨다. 즉,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문항 형식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추가하도록 한다. 이때에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학생의 성향을 고려하여 좀 더 중립적인 문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스토리 중에서 다른 스토리에 비해서 신뢰도, 타당도에서 불안정한 어머니의 심부름의 스토리를 수정한다.

- 이 검사에서 허위 문항은 적절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여 검사를 수정하되, 검사지 처음에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 타당도 점검을 위하여 여건이 허락되면 비행 청소년(소년원 재소자 등)들을 검사하여 일반 청소년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2차년도 연구의 이후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의 이론적 모형에 대한 토론 및 이론적 논의를 거쳐, 2차년도 예비검사를 위해 스토리 없는 문항 및 정답식 문항을 추가 개발한다.

둘째, 개정된 이론적 모형과 1차년도 예비검사의 통계 결과에 따라 1차년도 예비검사 문항을 수정 보완한다. 또한 내용 타당도를 위한 검증 방법을 구안한다.

셋째,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한다. 예비검사의 대상은 중학생 남녀 250명, 고등학생 남녀 250명으로 실시한다.

넷째, 2차 예비검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다섯째, 예비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 검사를 제작한다.

여섯째, 전국 청소년을 유층비율표집하여 표준화를 진행한다.

일곱째, 표준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끝으로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라는 주제 하에 1차년도 연구는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등 Rest의 4 구성요소 모델에 입각하여 개별 검사도구를 개발했다. 그러나 Rest의 4 구성요소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덕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된 각 분야의 지수 산출 방법 및 지수 간 관계 매김의 알고리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적인 타당도 확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윤리교육학회 간 공동 주최 형식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도덕성 발달 측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의 저작권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국윤리교육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의 학술지에 연구 결과의 일부를 기획 논문으로 게재하여 본 연구 성과를 학계 및 교육계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권석만(2009).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이가영(2006).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안중·박천환·신신철·조난심(1982). 한국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용린(1988a).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고찰. 한국교육 15(1).
- 문용린(1988b). 도덕과교육론. 갑을출판사.
- 배진수 · 이영만(2000).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창의적 성격과 창의성과의 관계. 초등교육 연구 13(2) : 43-62.
- 서미옥(2005). 4구성요소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본 도덕발달 연구의 지향점. 중등교육연구 53(2): 159-182.
- 윤영돈(2010). 다문화시대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 파주: 이담북스.
- 윤영돈(2000). 아리스토텔레스 교육론에서 예술과 도덕의 상관성 연구. 해사논문집 43. 해군사관학교.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만(2001). 교육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양식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 9: 97-132.
- 추병완(1996). 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도덕윤리과교육연구 7.
- 추병완(1999). 도덕교육의 이해. 도서출판 백의.

- Aristotle(1968).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H. Rackham (trans.)(MA : Harvard Univ. Press, 1968).
- Bandura, Albert(2003), 김의철·박영신·양계민 공역. 자아효능감과 인간행동. 서울 : 교육과학사.
- Bebeau, M. J. J. Rest, & C. M. Yamoore(1985). Measuring Dental Students' Ethics Sensitivity.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9(4).
- Bebeau, M. J., Born, D. O., & Ozar, D. T. (1993). The development of a 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Dentists* 60(2): 27-33.
- Blasi, A.(2008), 도덕적 인격의 심리학적 접근, D.K. Lapsley & F.C. Power(eds.),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일산: 인간사랑.
- Chang, F. Y.(1993). *The development of a 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Crisham, P.(1981). *Moral judgment of nurses in hypothetical and nursing dilemm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Minneapolis.
- Coser, Lewis A., 신용하·박명규 공역(2010). 사회사상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 Davison, M. L. R & Robbins, S. (1978).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bjective indices of Moral Development.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3): 380-401.
- Kirschenbaum, H., 추병완 · 김항인 · 정창우 공역(2006). 도덕·가치교육을 위한 10가지 방법. 서울: 울력.
- Kohlberg, L.(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Thinking and Choices in Years 10 to 16*.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ohlberg, L.(1981).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ume 1 :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김민남 · 김봉소 · 진미숙 공역(2004). 도덕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 Lapsley, D. K. 문용린 역(2000). 도덕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Lickona, T. (1991).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 Lopez, Shane J. & C. R. Snyder(eds.)(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이영호, 조성호, 이희경 공역(2008). 긍정심리 평가: 모델과 측정. 서울: 학지사.
- Meir, E. L. & Gati(1981).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 1011-1016.
- Mischel, W.(1974). *Processes in Delay of Gratification*. L. Berkowitz(ed.).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7. New York: Academic Press.
- Musser, L. M. & Leone, C.(1992). *Moral Character: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R. T. Knowles & G. F. McLean,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An Intergrated Theory of Moral Development*. Washington: The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 Narvaez, D. & J. Rest(1995). *The Four Components of Acting Morally*.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Boston & London: Allyn and Bacon; 문용린 역(2007).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Navaez, D. & D. K. Lapsley(2008). 일상의 도덕성과 도덕적 전문성의 심리학적 기초. D. K. Lapsley & F. C. Power(eds.).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일산: 인간사랑.
- Peterson, C. & M. E. P.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2009). 성격강점과 덕목의 분류.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Rest, J. R.(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문용린 외 공역(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서울: 학지사.
- Rest, J.(1985).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M. W. Berkowitz & F. Oser(eds.). *Moral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New Jersey: LEA: 9-25.
- Schwartz, S. H.(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New York: Academic Press.
- Sherer, M. et al.(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부 록

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1차년도 안)
 - 감수성·동기화·품성화·판단력 -
2.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논의 과정
3.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문항
구성과 수정안 예시

부록 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1차년도 안)

- 감수성 · 동기화 · 품성화 · 판단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윤리교육학회 연구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응답하신 개별 내용들은 컴퓨터로 처리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될 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총 12개의 짧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7~1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 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응답이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솔직한 생각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문 담당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연구책임자: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균열 (경상대학교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십시오.

- 당신은 몇 학년 입니까?
☐ ① 중학교 2학년 ☐ ② 고등학교 2학년
- 당신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 아버지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전문대졸 ☐ ④ 대졸 ☐ ⑤ 대학원
- 어머니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전문대졸 ☐ ④ 대졸 ☐ ⑤ 대학원
- 도덕, 윤리 관련 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 ① 매우 재미있다 ☐ ② 재미있다 ☐ ③ 보통 ☐ ④ 재미없다 ☐ ⑤ 전혀 재미없다
- 본인의 종교는?
☐ ① 기독교 ☐ ② 천주교 ☐ ③ 불교 ☐ ④ 기타종교() ☐ ⑤ 없다
- 친한 친구의 수는?
☐ ① 거의 없다 ☐ ② 1~5명 ☐ ③ 6~10명 ☐ ④ 10~20명 ☐ ⑤ 20명 이상

“친구의 심부름”

철오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거역하면 그가 괴롭히는 바람에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철호가 점심시간에 영배를 찾았다, 영배는 철호와와는 정반대로, 온순한 성격에다 몸이 약하고 싸움도 잘 하지 못한다,

철오는 영배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말하면서, 학교 앞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오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말이 부탁이지 강요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철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배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눈 딱 감고 그냥 빵 한번 사다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영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영배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를 위한 일인데, 해주면 서로 편하고 좋다	☐	☐	☐	☐	☐
2. 한번 빵을 사다주면 철오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	☐	☐	☐
3. 친구를 위한 일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	☐	☐
4. 영배는 빵을 사다주면서 속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	☐	☐	☐	☐
만일, 영배가 철오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5.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	☐	☐	☐	☐
6. 도와줄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	☐	☐	☐	☐

1.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2.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3. 만일, 당신이 영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심부름 해준다 __ (2) 심부름 하지 않는다 __ (3) 잘 모르겠다

4. 위와 같은 일들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절박한 수행평가”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스스로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민지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 과제를 약간 고쳐서 내는 것이 감점당하는 것 보단 더 나은 일이다	☐	☐	☐	☐	☐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	☐	☐	☐	☐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4.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은 내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다	☐	☐	☐	☐	☐
5. 과제를 한번 그렇게 쉽게 해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	☐	☐	☐	☐
6. 남의 과제를 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나 손해가 될 수 있다	☐	☐	☐	☐	☐

-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민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가형이의 과제를 보고 한다 __ (2) 보지 않고 혼자 한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점심 시간”

즐거은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종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받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서둘러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가 눈에 띄었다. 수진이를 발견한 채원은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이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이,,,,,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진이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하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그런 상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	☐	☐	☐	☐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	☐	☐	☐	☐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	☐	☐	☐	☐
4. 정은, 지은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깐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	☐	☐	☐	☐
5. 한번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	☐	☐	☐
6. 앞에 나가면 뒤처지는 애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될 수 있다	☐	☐	☐	☐	☐

1.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2.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3. 만일, 당신이 수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앞으로 나간다 __ (2)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다 __ (3) 잘 모르겠다

4.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표절(剽竊):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	☐	☐	☐	☐
2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	☐	☐	☐	☐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	☐	☐	☐	☐
4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	☐	☐	☐	☐
5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	☐	☐	☐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	☐	☐	☐	☐
7	나는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	☐	☐	☐

“부서진 작품”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려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였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해니처럼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	☐	☐	☐	☐
2	만일 스스로 한 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	☐	☐	☐	☐
3	해니처럼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	☐	☐	☐	☐
4	나는 해니처럼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	☐	☐	☐	☐
5	나는 해니처럼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	☐	☐	☐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	☐	☐	☐	☐
7	나는 스스로 한 일을 자신이 꼭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	☐	☐	☐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일표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주와 함께 버스를 탔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기에 둘은 번갈아 앉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곧 사람이 꼭 들어찼고 마침 동주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가까운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일표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리자고 말하자, 동주는 자신도 지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일표는 그 할머니가 몹시 피곤해 보여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일표는 자신이 앉을 차례가 되자 할머니께 앉으실 것을 권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	☐	☐	☐	☐
2	만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나도 일표처럼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	☐	☐	☐	☐
3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	☐	☐	☐	☐
4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조금 지쳐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	☐	☐	☐	☐	☐
5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지쳐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	☐	☐	☐
6	내 삶은 마음에 들고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	☐	☐	☐	☐
7	나는 자신이 지쳐있을 때는 꼭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동주의 행동도 충분히 받아들이 수 있다.	☐	☐	☐	☐	☐

“콘서트를 가다가”

현지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그룹이 일 년 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는데, 이 콘서트의 표를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서 ‘깹~’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곧 그 차량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널목에 쓰러져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목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급히 서둘러 오느라 현지는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의 마음은 초조했다. 내가 만일 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2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야 된다.	☐	☐	☐	☐	☐
3	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	☐	☐	☐	☐
4	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	☐	☐	☐	☐
5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6	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	☐	☐	☐	☐	☐
7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	☐	☐	☐	☐

“어머니의 심부름”

진호는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왜 그런지 발목이 아프다고 느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불편했다.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8시까지 어린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없으니, 진호에게 동생을 데려오도록 부탁하셨다.

이제 곧 8시가 된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하던 온라인 게임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거의 다 이기고 있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게임에서 질 것이고, 기분이 나쁜 친구가 무척 화를 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8시를 넘겨서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어린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았다. 내가 만일 진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 같다.	☐	☐	☐	☐	☐
2	심부름을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3	발목이 불편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가겠다.	☐	☐	☐	☐	☐
4	어머니의 심부름처럼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하는 편이다.	☐	☐	☐	☐	☐
5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친구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	☐	☐	☐	☐
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 집에 가지 않겠다.	☐	☐	☐	☐	☐
7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어린 동생을 데리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	☐	☐	☐	☐

"PC방에서"

같은 반 단짝인 희수와 민이는 주말에 PC방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원래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수는 민이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다.

희수가 먼저 PC방에서 나왔고, 민이는 가방을 챙기고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민이가 갑자기 희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이는 지갑을 하나 꺼내 들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갑을 빼놓고 화장실을 가서 집어 왔다' 고 했다. 고급 브랜드 지갑이었고, 지갑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수 십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만일 희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	☐	☐	☐
2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	☐	☐	☐	☐
3	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	☐	☐	☐	☐
4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	☐	☐	☐	☐
5	이제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	☐	☐	☐	☐
6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	☐	☐	☐	☐	☐
7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	☐	☐	☐

〈연습보기〉

다음은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하는 A 학생이 작성한 〈연습보기〉입니다. 잘 읽은 후, 본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자전거를 산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사지 않는다 ()

(2) 자전거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해당란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의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함)			■		
2	오래 두고 볼 때, 새 것과 쓰던 것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4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됨)					■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됨)		■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3)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2)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5)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1)

☞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오.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박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 훔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훔치지 않는다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⑤	④	③	②	①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⑤	④	③	②	①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신고해야한다 ②잘 모르겠다 ③신고하면 안 된다

(2)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중요하다	대체로중요하다	약간중요하다	별로중요하지않다	전혀중요하지않다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범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⑤	④	③	②	①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⑤	④	③	②	①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 ①들어 준다 ②잘 모르겠다 ③들어주면 안 된다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락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

도덕적 품성화 진단 검사도구 개발 논의 과정

1. 전체 회의 총괄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체 회의(도덕적 감수성팀, 도덕적 판단력팀, 도덕적 동기화팀, 도덕적 품성화팀) 소집은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검사도구 개발 절차에 따른 전체적인 협조 사항 및 질문지 구성, 통계처리 절차 등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1> 참조).

<표 1> 청소년 도덕성 지수 개발을 위한 전체 회의 소집 현황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 항
1차	2011.5.6(금)	서울 교대	총17명	-Rest의 4구성 요소 명확화 -도덕에 대한 개념 확인 -검사 방식 -기타사항
2차	2011.6.24(금)-25(토)	여주 남한강 콘도	총18명	-검사도구 문제점 분석 -예비검사 방안 -청소년 도덕성 척도 개발을 위한 신뢰도/타당도 검증 계획서 -예비설문조사 점검 양식 제작
3차	2011.7.16(토)	서울 교대	총9명	-허위문항 판단방법 -채점방식 -인구통계변인 -DIT관련 사항 -기타 및 행정사항
4차	2011.8.21(일)	서울 교대	총10명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수성/동기화/품성화 -기타사항 -행정사항

2. 세부 회의 내용(팀별 회의 포함)

1) 연구진 Kick-Off 회의

2) 도덕적 품성화팀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 4. 16(토) 16:00-18:3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

- ① 국내외의 청소년 대상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및 이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 현황 소개.
- ② 국내 자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도덕심리학 연구실에서 나온 청소년 대상 도덕적 품성화 관련 검사도구 및 경험적 연구 선행 자료 확보 및 검토.
- ③ 카페를 통한 자료 및 정보 교환(<http://cafe.daum.net/teensmoral>,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

(3) 차기 회의를 위한 과제 및 역할 분담

- ① 4월말까지 역할분담을 통한 서론부분 구축(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이론틀)
- ② 이인재-연구총괄, 윤영돈/류숙희-선행연구자료 검토 및 분석 통한 도덕적 품성화 측정 지표 준비, 김경순/김지영-국내 선행연구자료(석박사논문 및 학술지) 논문 목록 정리 및 경향성 파악, 안초록-연구 커뮤니티(카페) 개설 및 연락 담당.
- ③ 개별 과제 게시 및 정보교환은 카페를 통해 진행

3) 제1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5.6. 16:00-18:3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203호

(2) 회의 내용

- ① Rest의 4구성 요소의 명료화를 위한 요소별 개념 및 하위 요소 발표
- ② 각 팀마다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에 중첩된 것은 없는지 확인 : 품성화와 동기화 두 요소가 중첩된 부분이 있음
- ③ 도덕적 품성화 : 지속적인 실행력에 초점을 두고 한 개인의 내면적인 힘을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품성화는 그냥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최대한 가치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도덕적 품성화라고 이름 붙인 이상 윤리적 접근을 배제한 가치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 ④ 도덕의 개념 확인 : Rest는 ‘도덕=정의’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음. 도덕에 관한 개념 해석은 서구 사회 관점이 아닌 한국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수용 가능한 설문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에 동의함
- ⑤ 검사 방식
 -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설문을 만들기로 함.
 - 다인수 검사와 소수 샘플 심층 검사를 둘 다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인수 검사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1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인수 검사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전체적인 도덕성 발달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림. 소수 샘플 심층 검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초안 작성 시에는 포함시켜 보기로 함.
 - 총 설문 페이지 : 한 요소에 3개의 스토리로 구성하기로 함. 하나의 스토리에는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정도의 질문으로 만들기로 함. (4개 요소이기 때문에 총 12페이지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1차와 2차 설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함)
 - 대상 : 예비조사는 1000명 정도로 하자는 의견과 200여 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본을 줄이더라도 더 집중력 있게 검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으로 통일.
 - 척도 : 7점, 9점 척도는 너무 복잡하고 5점 척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용.
 - 시간 : 1차 한 시간 (중학교 45분 기준), 2차 한 시간 (중학교 45분 기준)
 - 내용 : 지루함을 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를 녹여낸 설문을 개발하자는 의견.
- ⑥ 기타 사항
 - 일관성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내면적인 덕성, 즉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계기가 되는 요소의 측정 문제

- 도덕성 총점을 낼 것인가, 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총점은 내지 않기로 결정함.
- 영역별 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합산 점수를 제시하는 것보다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
- 4개 영역 중요도 (선호도) 조사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음.
-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6문제 정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뽑는 방식. 둘째, 검사를 한 번 실시하고, 다시 실시해서 일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방식. 셋째, 기존 검사와 이 검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이 채택되었음.

(3) 차기 회의 위한 과제

- ① 5월 20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 위한 역할 분담 및 실행(5월 15일까지 작업한 것을 카페에 게시).
- ② 김정순/김지영-품성화 중 용기에 관한 것, 이인재/안초록-품성화 중 절제에 관한 것, 류숙희/윤영돈-도덕적 품성화에 관한 측정 도구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선행 연구물 분석 그리고 이것의 시사점, 품성화 측정 도구에 관한 지표 개발(1-2개 정도)

4) 도덕적 품성화 팀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6.4(토) 16:00-19: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

- ① 5월 22일 제출한 중간보고서(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품성화)에서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방향 및 구성 요소에 대한 검토
- ② 중간보고서의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방향 및 구성 요소

■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방향

-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및 하위 요소 탐구를 위해 관련 이론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인내심, 자기절제 및 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도덕적 품성화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여 이들의 요소가 측정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 특히, 긍정심리학에서 도덕적 품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바, 용기(용감함, 인내, 진실성, 활력)와 절제(신중함, 자기 조절)가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한다.
- 이 도덕적 품성화의 검사도구는 아직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활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장 최초로 시도한다는 의의가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용이성 높이기 위해 3가지 STORY를 제시하고, 각 스토리에 용기, 자기절제-만족지연,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9-12 정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덕적 품성화 진단도구 구성 요소

대항목	소항목	설명
절제-만족지연능력	인지적 전략	목적 대상에 대한 인지의 전환을 통해 자기 조절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
	자기 조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고 만족을 보류하며,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용기	정신적 용기	도덕적인 의견을 표해야 할 때, 확고하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
	신체적 용기	도덕적 의견을 표해야 할 때,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의 위험에 대항하는 행동
자기효능감	유능감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잘 해결해 왔다는 느낌
	기대감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

■ 검토 내용

- 도덕적 품성화 구성요소(도덕적 절제, 도덕적 용기, 도덕적 자아효능감)에 모두 동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
- 도덕적 품성화를 정의함에 있어서 “인지적 전략과 성격적인 요소”가 관여함을 볼 때에, 현재 제시된 것으로는 불충분함. 예컨대 나바에츠와 램슬리(2008: 273-278)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EA-1 : 갈등과 문제해결(상호관계 문제해결하기, 협상하기, 개선하기), EA-2 : 공손하게 주장하기(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기, 주장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바, 의사소통능력 혹은 갈등해결 능력을 인지적 전략으로 보고 이를 도덕적 품성화 측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논의 결과 기존의 세 개의 대항목에 “의사소통”을 추가하고 소항목으로 주장기술형(화술), 갈등해결능력을 넣기로 하고, 추후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보다 명료화하기로 함.
- 문항형식과 채점방식에 관한 논의 : 도덕적 품성화를 DIT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DIT의 경우,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즉 단계별로 충돌하는 방식의 문항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문항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런데 도덕적 품성화의 경우, 단계나 위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 요소들에 대한 물음에 대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정도에 머물 것 같다는 의견.
- “도덕적 품성화” 용어의 성격 규정 : Rest의 도덕적 품성화는 “실행력(implementation)”의 성격이 현저하다. 즉, 가치중립적인 심리학적 설명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향후 “도덕적 품성화”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실행력”으로 바꿀지, 혹은 “도덕적 품성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가치중립적인 “실행력”의 의미로 제한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논의 결과 “도덕적 품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리함.
- 스토리 구성과 관련한 내용 : 중간보고서에 제시한 스토리의 경우, “뽕소니 차량”은 용기와 자아효능감을 물을 수 있지만 절제의 요소는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심부름”은 이들 세 요소를 모두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스토리에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 요소 모두를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 도덕적 품성화의 대항목은 세 가지이며, 각각 두 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항목의 모든 요소까지 물을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역채점 문항을 넣을 것인지의 여부. 가령, 자기절제-만족지연과 관련하여 “나는 운동이나 공부계획을 일단 세우면 그것을 고수한다.” vs “나는 돈이 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모두 써버린다. “와 같이 역채점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가치지향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 스토리 형식으로 묻는 방식 이외에 스토리 없이 기존에 개발된 용기나 자아효능감 묻는 문항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 논의 결과 도덕적 품성화의 대항목 3개를 묻는 스토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잠정 정리함.

(2) 차기 회의 위한 과제, 역할 분담, 스토리 선정

- ① 류숙희/윤영돈-도덕적 품성화 구성요소 명료화하여 카페에 게시하기.

- ② 도덕적 품성화 구성요소에 입각한 스토리 개발·수정·보완하여 카페에 게시하기(류숙희-콘서트, 윤영돈-어머니의 심부름, PC방에서 생긴 일-안초록, 이성친구와 흡연 문제 및 유혹-김경순/김지영)

콘서트

현지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그룹이 일년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는데, 이 콘서트의 표를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현지가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서 꺾히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곧 그 차량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널목에 쓰러져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목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급히 서두르느라 현지에게 휴대폰도 없었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의 마음은 초조했다. 내가 만일 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 : 다른 사람의 부도덕 행동을 목격한 후의 도덕적 품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임

PC방에서 생긴 일

희수와 민이는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이다. 주말에 민이가 함께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말했다. 희수와 민이는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원래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수는 민이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다.

희수가 먼저 PC방에서 나왔고 민이는 가방을 챙기고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민이가 갑자기 희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이는 지갑을 하나 꺼내들며, 옆자리 사람이 지갑을 빼놓고 화장실을 가서 집어 왔다고 했다. 고급 브랜드의 지갑이었고,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수 십 장이 들어 있었다. 민이는 지갑 속의 돈으로 함께 밥도 먹고, 남은 돈은 반씩 나누어 갖자고 말했다.

- 취지 :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절도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전체 47%를 차지해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적어도 한 번은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으며, 대부분 반복적으로 절도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절도가 22%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이상 절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25% 가량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 절도는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놀이 공간인 PC방에서의 절도가 심각하다고 하여 이 문제를 사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친구의

절도를 접한 청소년의 이야기로, 절도를 범한 친구의 잘못을 어떻게 조정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혹은 함께 유혹에 빠져서 목인하거나, 아니면 잘못 된 것은 알지만 친구에게 ‘옳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문제 사례에서 묻고자 하는 도덕성은 ‘용기, 절제, 의사소통능력, 도덕적 자아효능감’ 입니다.

어머니의 심부름

진호는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 발목에 무리를 느꼈다.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조금은 불편했다.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니가 어린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없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8시까지 어린이집에 가서 동생을 데리 오면 평소보다 게임을 1시간 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곧 8시가 된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하던 온라인 게임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친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8시를 넘겨서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았다. 내가 만일 진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 : 어머니로부터 부탁받은 심부름을 수행하는 것과 친구와의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 간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는 도덕적 품성 측정

친구의 이성친구가 좋아요

정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현수가 요즘 매우 기분이 좋은 것을 보고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알고 보니 현수에게 새로운 이성친구가 생겼다는 것이다. 현수는 새로 생긴 이성친구를 정현이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셋이 처음으로 만나던 날, 정현이는 크게 놀랐다. 현수의 이성친구는 정현이가 오래전부터 짝사랑 해오던 하윤이였던 것이다. 정현이는 슬펐지만, 현수가 너무나 행복해 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현수의 이성친구 하윤이에게 연락이 왔다. 현수 몰래 정현이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정현이는 고민되기 시작했다.

- 취지 : 사춘기, 처음으로 남녀 관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 절제, 용기,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임

유 후

철이와 옥이는 놀이공원에서 현금이 두둑이 든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에는 현금이 30만원이나 들어있었다. 철이는 지갑을 발견한 순간 돈을 나누어 가지자고 했고, 옥이도 돈을 보는 순간 이 돈으로 사고 싶었던 바지와 점퍼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다. 옥이는 평소에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라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옥이의 마음속에는 ‘이 돈이면 친구들이 다 입는 바지, 점퍼를 살 수 있어. 얼마나 입고 싶었는데, 아무리 엄마를 졸라도 사주지 않았던 옷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살 수 있어. 돈을 나누어 가져도 15만원인데.’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옥이는 한편으로 평소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너한테 달려있어.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도.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해.” 옥이는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옥이는 철이에게 지갑을 물품 보관소에 맡기자고 말했다. 철이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둘만의 비밀로 하고 쓰자고 말했다.

흡연, 음주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몇 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2. 성별은? ① 남 ② 여
3.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4. (3-① 답한 경우)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때는 언제쯤입니까?
 ① 초등학교 1,2,3학년 때 ② 초등학교 4,5,6학년 때
 ③ 중학교 1학년 때 ④ 중학교 2 학년 때 ⑤ 중학교 3학년 때
- 5-1. 지난 한달 동안 담배를 한번 이상 피운 날은 며칠 쯤입니까?
 ① 거의매일 ② 일주일 전 ③ 2주전 ④ 3주전 ⑤ 피운 적이 없다
- 5-2. 지난 한달 동안 술을 한잔 이상 마셔본 적이 며칠 쯤 전입니까?
 ① 거의매일 ② 일주일전 ③ 2주전 ④ 3주전 ⑤ 마신 적이 없다
6. 담배를 피우는 경우,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웁니까?
 ① 5개피 미만 ② 6~10개피 ③ 11~20개피 ④ 20개피 이상 ⑤ 담배를 안 피움
7.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는?
 ① 집이나 친구 집 ② 학교(화장실 등) ③ 놀이터, 공터, 야산, 공원 등
 ④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 ⑤ 피운 적이 없다.

8. 담배를 구입하는 장소는?

- ①집(가족의 담배) ②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③가게에서 직접 구입
④행인이나 모르는 사람을 통해 ⑤구입한 적이 없다.

9. 담배를 피우는 경우 금연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1개월 내에 금연 ② 3개월 내에 금연 ③ 6개월 내에 금연
④ 금연할 계획이 전혀 없다
⑤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앞으로도 안 피울 것 이다.

10. 흡연, 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 ① 비디오시청 ② 보건수업 ③ 외부강사의 교육 ④ 행사활동(전시회, 글짓기)

이상과 같이 개발된 스토리는 총 6가지이다. 이 가운데 흡연, 음주예방 설문은 스토리 형태가 아니어서 배제했다. 다음으로 “친구의 이성친구가 좋아요” 및 “유혹”의 스토리는 일상적이지 않고,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골고루 묻는 문항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스토리는 세 가지(콘서트, PC방에서 생긴 일, 어머니의 심부름)로 정해졌으며, 이들 스토리를 토대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묻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5) 제2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 6. 24(금) 15:00-25(토) 12:00

남한강 일성 콘도

(2) 회의 내용 : 팀별 진단도구 검토,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방안

▲ 진단도구 문제점 분석

- 품성화 하위 요소를 절제-만족지연능력, 용기,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4개로 나뉘는데, 다른 팀처럼 3개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절제-만족지연능력은 인내로 바꾸고, 용기와 자기효능감을 묶어서 자아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수행기술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 ‘나는 ~을 할 것이다’를 빼는 것이 좋겠다. 6개의 질문에 허위문항 추가하여 (앞, 뒤, 랜덤

순서로) 답변의 일관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 스토리가 많은데 사전 조사를 통해서 3개의 스토리로 압축하도록 한다.
- 스토리가 길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도덕성 구성요소별 검사지 양식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 예비검사 방안

- 인원 및 대상 : 총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다.

중 학 교 2학년 남자 60명	중 학 교 2학년 여자 60명
고등학교 2학년 남자 60명	고등학교 2학년 여자 60명

- 조사는 예상 소요시간(2H)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하지만 그 간극이 1주일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조사대상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사전 공문을 발송한다. 이때 질문지는 “추후 협조” 라고 해서, 사전교육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는 한꺼번에 실시하고, 자료처리(입력-분석)은 각 팀별로 분담해서 한다.
- 질문지는 PM사무국에서 종합해서 인쇄한다. 스테이플러로 철을 할 때에는 인구통계변인과 감수성을 한묶음으로 하고, 판단력은 별도로 한묶음으로 해야 한다.
- 선물은 두 가지인데, 우선 필기구는 질문지 나눠주기 전에 사전에 배포하여 감사표시를 한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한 사람에게는 끝나고 나서 상품권을 나눠줄 것이라는 공지를 한다. 조사가 실제 끝이 나면 문화상품권(5천원)을 제공한다.
- 질문지는 조사 내용이 다르게 실린 2개씩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으므로, 설문지는 조사 대상별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배포 전 설문지 유형을 확인하여 배포한다.

▲ 청소년 도덕성 척도개발을 위한 신뢰성 타당도 검증 계획서(박균열, 경상대)

- 사전검사: 연구진 자체적으로 실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정도, 답변작성 중 질문사항 등 내용/절차 점검
- 신뢰도 검증: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

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정확성(accuracy)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어떠한 측정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얻는 측정결과값들의 분산으로 신뢰성을 판단 할 수 있다.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 동일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나 항목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측정항목 중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항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갈등 문항에서 연구자가 필수적(수치상 신뢰도 하락이라도 중요할 경우)이라고 판단할 경우 문항기술을 조정해야 한다. 계수를 산출해서 여러 항목들로 구성된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에서 0.7이상이 되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각 연구팀 기술

•**반분신뢰도(split-half method reliability)**: 측정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두개의 척도로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조사항목의 반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획득한 다음, 항목의 다른 반쪽을 동일한 대상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반분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가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양분된 각 측정도구의 항목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척도를 이룰 수 있도록 적어도 8개 문항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반분하는 방법에는 짝수항목과 홀수 항목으로 반분하거나, 무작위적으로 항목을 반으로 추출하여 나머지를 또 하나의 척도로 만드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 보통 Spearman-Brown Reliability Coefficient를 이용한다. ==> 각 연구팀 기술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method)**: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대상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번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두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도출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신뢰성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측정도구를 두 번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루어진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미쳐 신뢰도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시간 간격을 유의해야 하는데 보통 2주에서 4주정도의 시간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또한 이 신뢰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값이 변화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검사 방법에 의한 신뢰성 측정방법은 실제 신뢰성을 과소 측정하거나 과대 측정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으나 측정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주간격으로 재

측정을 하여 신뢰성을 파악한다. 만약 측정결과의 상관관계가 0.8이상 수준이면 그 측정도구는 신뢰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증과정 길어 사실상 어려움.

- 타당도 검증: 타당도(validity)는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타당도는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와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내적타당도는 실험이나 연구에서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고, 외적타당도는 이렇게 측정하여 얻은 실험이나 연구결과를 실제 상황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한다.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

실험이나 연구에서 다른 외생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인이 되는 변수의 작용에 의한 효과만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조사설계와 외생변수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나 제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적 타당도이 세부적인 유형으로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기준에 의한 타당도, 개념타당도 등이 있다.

A.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안면타당도라고도 하며, 이는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한다. 즉, 측정도구가 대표성이 있는 척도내용을 표집했는가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타당도는 연구자나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된다. 이는 설문문의 본조사 이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의미전달의 정확성 또는 소요시간 이해를 정도를 조사하여 내용이 중복되거나 어려운 문항은 제외 후 본 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관련전공의 박사, 교수 및 연구원)에게 해당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각 연구팀의 내용에 대해, 관련 타 팀의 내용 검증 등으로 보완

B. 준거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특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측정의 효과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려는 속성이 그 속성의 기준이 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현재의 특정현상을 측정하는데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정확한가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존타당도를 통하여 기준에 의한 타당도를 검증하며, 이는 본 척도의 결과와 기존연구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기전달한 바 있으나, 팀별 의견이 없었음. 팀별 주제에 맞는 기존 준거척도 제출하여, 본 조사시 동시 실

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C.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개념타당도(concept validity)라고도 하며, 추상적인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도구가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해서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이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얻어진다. 이는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세분화된다.

•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특정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관심이 있는 특정개념과 관련이 되는 개념(유사한 다른 여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론적 구성도를 작성하여 관련된 개념들로 구성된 모델에 측정방법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들 개념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일수록 이해타당도가 높은 측정방법이 된다.

•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상이한 두 가지 측정방식을 개발하고 이에 의하여 얻어진 측정치들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을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중 항목으로 복수로 변수를 사용해도 된다.

•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서로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값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동질성 전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구분

– 동질성 전제 안 된 경우: 우월집단, 정상집단, 열등집단(범죄자 등)

따라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학년(중1, 중2, 고1, 고2, 대학생)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시행하며, Scheffe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또한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팀별 대조집단 선정에 유념하여 집단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다.

•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 실험과 유사한 다른 상황이나 현실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일반화가 가능한가에 관한 타당도를 말한다. ==> 각 연구팀 위임

협조: 각 연구팀에서는 연구 간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을 위해, 연구팀 내 조사시행 전담자 1명 을 지정해서 PM사무국으로 통보 요망

- 검사: 재검사 신뢰도 테스트는 이번엔 하지 않기로 하였다. 내용타당도는 각 팀별로 학부 3, 4 학년에게 풀어 보도록 해보고 코멘트를 받도록 하였다.

▲ 설문조사를 위한 자체 점검표 제작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현황	학교	
	날짜	
	참석자 유형	
	참석자 수	
2. 결과	회수부수	
3. 설문지 배송	배송일	
	배송 방법	
4. 조사자 (학교 선생님)	이름	
	연락처	
5. 조사담당자	이름	
	연락처	
6. 기타	학생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문항	

6) 도덕적 품성화팀 회의 : 카페 게시판을 통한 구성 요소 및 스토리 수정

(1) 일시 및 방법 : 2011년 6월 한 달간 카페 게시판 통한 수정작업

(2) 수정 내용

① 도덕적 품성화 구성 요소 수정 (6월 27일, 류숙희)

대항목	소항목	설명
인내 (절제-만족지연 능력)	인지적 전략	어떤 방해 및 유혹에도 원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목적 대상에 대한 인지의 전환을 통해 자기 조절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
	자기 조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고 만족을 보류하며,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아강도	용기	도덕적인 의견을 표해야 할 때, 확고하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 또한 이 경우에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의 위험에 대항하는 행동
	자아효능감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잘 해결해 왔다는 느낌. 성공 경험, 대리경험이 필요함.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 및 긍정적 평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돕기 위한 사회적 기술, 갈등해결에 관련된 인지적 판단능력, 전략구성능력
	의사소통능력	도덕행위를 위해 자기의 판단, 느낌, 의견에 대해 공손하고, 의미 있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요소를 Rest의 도덕적 품성화를 정의하는 진술에서 확장함.

“(도덕적으로 행위한)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피로와 쇠약한 의지에 저항하며,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에 뒤따르는 충분한 인내심과 자아강도 그리고 수행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Rest, 문용린 외 공역, 2008: 24)

② 도덕적 품성화 스토리 확정

- 스토리 개발 및 수정보완 작업(6월 1달간 카페게시판 통해 작업)
- 6개의 스토리 중 최종 3가지 스토리 확정(6월 30일)(콘서트, 심부름, PC방에서 생긴 일)

7) 3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년 7월 16일(토) 17:00-20: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도덕적 품성화팀 관련 사항 위주로 정리)

① 허위문항 판단방법

- 역문항의 경우 역코딩보다는 정코딩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제시
- 정문항과 역문항의 검사 결과, 그 차이가 3점 이상이 될 경우 허위문항으로 판단

★ 논의 결론

- ㉠ 역코딩을 하고 난 뒤 중앙(3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허위문항으로 판단
- ㉡ 2점 차인 경우 중앙(3점)이 관련될 경우에는 직접 그 문항과 설문지를 조사하는 작업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② 채점 방식

- 전체 채점 방식을 0점-4점으로 하는 방안과 1점-5점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괜찮은가.
- 실상 저 두 가지가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 제기

★ 논의 결론 : 0, 1, 2, 3, 4의 방식으로 통일

③ 인구통계변인

- 3번과 4번의 부모 학력 문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 제시
- 5번과 7번은 빼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 제시
- 6번에서 '기독교' ⇒ '개신교'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 한편 6번 문항을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만 측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

★ 논의 결론

- ㉠ 5번과 7번은 뺀다.
- ㉡ 6번 문항은 사용하되, 채점할 때는 군집 채점 방식으로 하여 종교가 있느냐(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를 묶어서) 없느냐로 통계

④ 기타 및 행정사항

- 데이터 클리닝의 기준 선정 필요성 제시
- 각 팀마다 허위 응답자를 조사하고, 로 데이터(raw data)와 허위응답자를 뺀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두 반 정도(60명)만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반분 신뢰도)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제시
- 각 영역별 총점이 통일되면 혹은 환산점수를 사용한다면, 매해 검사할 때 각 영역의 발달

- 정도를 검사할 때나 다른 부분에서도 비교가 용이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제시
- 신뢰도(내적 일치도) 검사를 할 때 측정 영역별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조사지 첫 장에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 설문 조사>를 ⇒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로 수정, 또한 <7-12개씩의 문항> ⇒ <여러 문항>으로 수정할 필요성 제시
- 각 영역별 검사 지시문(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통일
- 최종 보고서는 각 팀마다 8월 말까지 작성하되, 이를 위한 모임을 8월 중순경 가질 예정임

8) 4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8월 21일(일) 15:00-20: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도덕적 품성화팀 관련 사항 위주로 정리)

① 검사결과 분석 관련

- 답안에 대한 채점 방식을 지난 회의에서는 0-4점으로 결정하였으나, 다시 1-5점으로 환원한다.
- 각 지수 산출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감수성), 요인분석(동기화/품성화)을 통해, p값이 .05초과는 우선 제외하고, 나아가 Beta값이 0.3미만인 항목은 삭제하고 난 뒤에 종합지수를 계산한다.
- 요인 분석 결과 상정한 요인이 잘 묶여지지 않을 경우 문항을 조정한다.
- 2년차에는 1년차 때와 달리 고등학교 1-2학년을 함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② 기타 사항

- 최종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토의 관련 장소 / 시간 / 주제 / 팀별 논의과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2-3년차 향후 연구 소요 및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추후 연구나 메타 연구는 3년차에 제시한다.
- 최종보고서 맨 앞의 총론에서 4요소의 상관관계를 개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인구통계변인에 따른 분석 시, 학교급, 성별, 도덕과목선호도, 종교 유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미도를 표기해서 분석하되, 의미가 없더라도 표시하고 분석에 포함한다. 다만 상호작용 분석 시는 성별*학교급별 교차 검증만 포함한다.
- 1년차의 작업에서는 모든 팀의 노력을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쏟아야 한다.

③ 행정사항

- 10.27(목)-28(금) 한국윤리교육학회 국제세미나 중 28일 오후 세션에서 ‘청소년도덕성검사 도구’ 1년차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발표 요지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 기 제출(9.30)한 보고서를 요약 작성, 실제 발표 시에는 ppt형태로 15분 내외 발표, 토론 3명 정도(15분).

9) 도덕적 품성화팀 회의

(1) 일시 및 장소 : 9월 18일(일) 15:00-18: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 : 최종보고서 수정 및 보완 작업

① 일정 관련 안내

- 9월 24일 오전~ 27일 오전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
- 9월 27일~29일에 보고서 최종 수정
- 9월 30일까지 제출

②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관련 검토

- 세 가지 스토리의 타당성 정도 검토
- 수행기술 가운데 ‘사회적 기술’에 대한 결과가 불안정한 이유(문항으로 제대로 구현됐는지, 문항 교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문항에 문제가 없다면 시대적 가치 변화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봐야 하는지)
- 문항 분포도(%)를 보여줘야 함
- 허위문항이 제대로 기능을 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
- 예시문항의 필요성 여부 : 도덕적 판단력에서는 필요하지만 도덕적 품성화에서는 필요성 크지 않음

- 검사자를 위한 매뉴얼 필요
 - 도덕적 품성화 진단도구의 구성요소 가운데 소항목이 Rest의 이론과 얼마나 관련이 되는가에 대한 논거 확보. Rest의 제4요소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검토하고, Rest의 4요소모형을 발전시킨 나바에즈와 랩슬리의 연구를 토대로 소항목의 구성 논리 확충 필요. 아울러 2차년도에서 도덕적 품성화 진단도구의 구성요소(대항목 및 소항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 요인분석을 한 결과 도덕적 품성화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 묶이기보다 사례별로 묶인 것으로 나타난 원인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결론으로 바로 말하기는 어렵고 2차 년도에 더 탐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③ 기타 사항
- 도덕적 품성화 진단도구의 실용도 부분 추가
 - 설문지 제목에 ‘도덕성 발달’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설문에 응할 때 자신의 도덕적 품성화 정도를 표현하기보다는 기대되는 혹은 바람직한 응답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향후 ‘학생 생활 질문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0) 5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일) 15:00-20: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품성화에 대한 보고서 초안 검토

- 연구의 주요 이론적 배경 검토
- 연구의 결과 내용: 진단도구 개발의 과정, 예비검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분석,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보완 및 정책 건의 사항 등에 대한 검토
- 보고서 체제 및 참고문헌 검토: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제시한 보고서 체제에 맞는가? 본문에 참고한 참고문헌 정리가 올바른가?
- 9월 24-25일에 예정된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작성을 위한 방향논의

11) 연구자문 회의(워크숍)

(1)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24일 16:00-25일 15:00까지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참석자 : 이인재, 안초록, 서규선, 박균열, 노영란, 김애경, 노화영, 박종태, 서채원, 김지영,
김경숙

(3) 회의 내용

- ① 1일차 : 청소년 도덕성 진단 적용 연구(도덕적 판단력) 결과 보고서 초안 검토
- ② 2일차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도덕적 품성화) 결과 보고서 초안 검토
- ③ 검토 중점 사항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 관련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고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는가?
 - 검사도구의 개발이 측정하고자 하는 도덕성의 요소와 부합하는가?
 - 예비검사의 과정이나 결과 분석이 잘 되었고 타당한가?
 - 예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2차 연도 연구 계획과 정책적 제언이 설득력이 있는가?
 - 보고서 체제 및 분량이 적절하고, 표현에서 부적절함이나 오자 등이 없는가?

부록 3

2차년도 도덕적 품성화 진단 검사 도구 문항 구성과 수정 예시

문항형식	문항요소		문항번호	채점방식	
	대항목	소항목	그대로 채점		
스토리별 문항	인내	인지적 전략	콘서트3 어머니2 PC방1	합산하면 ‘인지적 전략’ 15점	합산하면 ‘인내’ 30점
		자기 조절	콘서트6 어머니7 PC방3	합산하면 ‘자기 조절’ 15점	
	자아강도	용기	콘서트2 어머니3 PC방2	합산하면 ‘용기’ 15점	합산하면 ‘자아강도’ 30점
		자아효능감	콘서트4 어머니4 PC방7	합산하면 ‘자아효능감’ 15점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콘서트5 어머니1 PC방4	합산하면 ‘사회적 기술’ 15점	합산하면 ‘수행기술’ 30점
		의사소통 능력	콘서트7 어머니5 PC방6	합산하면 ‘의사소통능력’ 15점	
	허위문항		콘서트1 어머니6 PC방5		합산하면 15점
단문형 문항 (2차년도에 만들어야 할 문항임)	인내	인지적 전략	3	합산하면 ‘인지적 전략’ 15점	합산하면 ‘인내’ 30점
		자기 조절	3	합산하면 ‘자기 조절’ 15점	
	자아강도	용기	3	합산하면 ‘용기’ 15점	합산하면 ‘자아강도’ 30점
		자아효능감	3	합산하면 ‘자아효능감’ 15점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3	합산하면 ‘사회적 기술’ 15점	합산하면 ‘수행기술’ 30점
		의사소통 능력	3	합산하면 ‘의사소통능력’ 15점	
합산점수는 180/2=90점(다른 요소와 동등하게 90점으로 맞추기위해서 2로 나눔)					

“콘서트를 가다가”

현지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그룹이 일 년 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는데, 이 콘서트의 표를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서 ‘깅~’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곧 그 차량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널목에 쓰러져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목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급히 서둘러 오느라 현지는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의 마음은 초조했다. 내가 만일 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허위 문항을 뒤로 보냈고, 문항을 보다 분명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을 포함하여 수정하였음)	■	■	■	■	■
2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야 된다.	■	■	■	■	■
3	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	■	■	■	■
4	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	■	■	■	■
5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내가 본 것을 확신하여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항이 삭제된 경우의 신뢰도 계수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대로’라는 단어를 ‘내가 본 것을 확신하여’로 수정하였음. 이것으로 사실대로라는 단어가 ‘진실’과 혼동될 가능성이 줄어들)	■	■	■	■	■
6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문항의 문항반응결과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90%가 넘게 반응하고 있어 이런 반응형태를 완화하고자 ‘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 지만’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함)	■	■	■	■	■
7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	■	■	■	■

“어머니의 심부름”

진호는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왜 그런지 발목이 아프다고 느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불편했다(→삭제함. 갈등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발목이 아프다는 상황을 포함시켰으나, 이 부분으로 인해 이 스토리의 방향이 다른 스토리들과 달라지는 경향을 보임).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8시까지 어린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없으니, 진호에게 동생을 데려오도록 부탁하셨다.

이제 곧 8시가 된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하던 온라인 게임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거의 다 이기고 있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게임에서 질 것이고, 친구가 기분이 상해서 무척 화를 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8시를 넘겨서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어린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았다. 내가 만일 진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금 이 순간에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원래문항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 같다.’ 이었으나 상관분석결과 사회적 기술 부분의 요소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수정하였음. 역채점문항이 아닌 형태로 수정하였음).	■	■	■	■	■
2	심부름을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3	발목이 불편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가겠다. (삭제함 -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가 낮은 문항임)	■	■	■	■	■
4	어머니의 심부름처럼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하는 편이다.	■	■	■	■	■
5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친구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	■	■	■	■
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 집에 가지 않겠다.	■	■	■	■	■
7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어린 동생을 데리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삭제함 -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가 낮은 문항임)	■	■	■	■	■

"PC방에서"

같은 반 단짝인 희수와 민이는 주말에 PC방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원래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수는 민이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다.

희수가 먼저 PC방에서 나왔고, 민이는 가방을 챙기고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민이가 갑자기 희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이는 지갑을 하나 꺼내 들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갑을 빼놓고 화장실을 가서 집어 왔다' 고 했다. 고급 브랜드 지갑이었고, 지갑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수 십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만일 희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	☐	☐	☐
2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	☐	☐	☐	☐
3	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매우 크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원래문항의 '궁뎅갈지깡'의 구어체 '매우 크지깡'으로 문어체 수정함).	☐	☐	☐	☐	☐
4	지금 지갑을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주겠다. (원래문항은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이었으나 상관분석결과 사회적 기술 부분의 요소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 수정하였음. 감정이입능력보다는 기술에 초점을 두어 수정하였음).	☐	☐	☐	☐	☐
5	이제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	☐	☐	☐	☐
6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	☐	☐	☐	☐	☐
7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	☐	☐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oral Characterization Test for Korean Youth

KYMT is developed to measure youth morality based on the four component model's factor: moral sensitivity, moral judgment, moral motivation, and moral character.

Moral character is as in the followi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Moral Characterization Test for Youth based on J. Rest's four component model. The outline of this study runs as follows. First, we scrutinized the four components model of Rest. And then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struct of moral character, we examined not only the concept of the fourth component, that is, moral character or implementation but also the related theories: Aristotle's virtue theory, the concept of self-efficacy(Bandura), the concept of delayed gratification(Mischel), the model of moral expertise(Narvaez & Lapsley), the study of positive psychology concerning courage and temperance. The construct of moral character consists of persistence(cognitive strategy, self-regulation), ego strength(courage, self-efficacy), and implementation skills(social skills, communication skills).

The construct of moral characterization test consists of persistence(cognitive strategy, self-regulation), ego strength(courage, self-efficacy), and implementation skills(social skills, communication skills) with 3 story, 18 items and 3 faking good items of 5 likert type. The subjects were 262 You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reliability of Moral Characterization Test was moderate with Cronbach's α coefficients .75. The validity of Moral Characterization Test was

not good with constructs, but moderate with stories.

In conclusion, Moral Characterization Test was proved moderate to measure Youth' moral characterization. But further study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is test.

Key Words : Morality, Youth Morality, Korea Youth Morality Test(KYMT),
The Four Component Model, Moral character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 · 김소희 · 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 · 임영식 · 이인재 · 박균열 · 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 · 홍성훈 · 서규선 · 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 · 변소용 · 김국현 · 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김희진 · 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 · 정해숙 · 마경희 · 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 · 박건 · 권영인 · 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김지은 · 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 ·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 · 김영문 · 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장근영 · 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 · 김희진
- 11-R15 한 · 중 · 일 · 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 · 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 · 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 · 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 · 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무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 · 중 · 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 · 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78-3

978-89-7816-973-8(세트)